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144호 【루계 제24922호】 주체104(2015)년 5월 24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64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64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황병서동지, 장창화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현지에서 조선인민군 제264대련합부대 부대장 륙군중장 김성일동지, 부대 정치위원 륙군소장 한표섭동지를 비롯한 대련합부대의 지휘관들이 영접하였다.

대련합부대 지휘부에는 최고사령관기와 공화국기가 게양되여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적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실을 돌아보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천리혜안의 예지와 작전적구상에 따라 조직되였으며 위대한 장군님께서 몸소 지휘부의 위치를 잡아주신 조선인민군 제264대련합부대에는 백두산위인들의 불멸의 자욱이 아로새겨져있다.

대련합부대는 제국주의련합세력을 물리치는 지난 조국해방전쟁시기 여러 전투들에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혁혁한 전과를 거두었으며 전후복구건설의 나날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을 사수하는 길에서 무비의 애국적헌신성과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백두산총대의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여왔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귀중한 사적자료들과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보아주시면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현명한 령도와 세심한 보살피심에 의하여 대련합부대는 무적필승의 강위력한 정예대오로 자라났으며 영웅적위훈의 행로를 걸어올수 있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2009년 9월 위대한 장군님을 모시고 이곳 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찾으시였던 날을 감회깊이 회고하시면서 그날 부대장병들과 함께 공훈국가합창단의 공연을 관람하시고 지휘관들을 위해 마련하신 연회에도 참석하시여 한없는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던 장군님의 자애로운 영상이 떠오른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조선인민군 제264대련합부대를 39차례나 시찰하시였다고 하시면서 전체 장병들은 부대를 대단히 중시하시며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장군님의 크나큰 기대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사들을 비롯한 대련합부대의 력대 지휘성원들과 부대가 배출한 영웅들의 사진들을 보아주시면서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부대의 자랑찬 행로를 헤아려주시였으며 우승기들을 보시고서는 정말 많다고, 군단이 전투정치훈련과 사회주의건설장들에서 위훈을 많이 세운 부대라는것을 알수 있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에서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실을 잘 꾸린데 대하여 평가하시면서 다른 사업에서는 앞선 단위와 뒤진 단위가 있을수 있어도 사상교양거점을 꾸리고 그를 통한 교양을 진행하는데서는 잘하고 못하는 단위가 없어야 한다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령군업적을 군인들의 가슴마다에 깊이 새겨주어 싸움준비와 전투력강화의 자랑찬 성과로 빛내여가야 한다고 하시였다.

2 면 으 로 계 속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제264대련합부대 지휘부를 시찰하시였다

1 면 에 서 계 속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사연구실, 작전지휘실을 돌아보시고 대련합부대의 방어작전계획보고를 청취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에서 당의 의도에 맞게 지휘관, 참모부 일군들의 작전전투조직과 지휘능력을 부단히 높여가고있다고 하시면서 자기 부대의 싸움준비에 대하여 당앞에 전적으로 책임지는 확고한 관점과 립장에서 싸움준비완성에 최대의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가 맡고있는 임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시면서 부대의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는데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였으며 지휘부청사를 더 잘 꾸리고 항일유격대식부대지휘관리방법을 철저히 확립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군부대의 도서실과 군인회관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당에서 콤퓨터자료전송체계를 세워준 결과 군인들이 매일 당보와 군보를 정상적으로 보고 당의 목소리를 늘 듣고있는데 대하여 기뻐하시면서 도서실에 필독도서들을 정상적으로 보장해주는것과 함께 군인들속에서 책읽기와 감상문쓰기를 정상적으로 진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인회관운영을 잘해야 한다고, 사람이 밥을 먹지 않고서는 살수 없는것처럼 혁명가에게는 사상정신적량식이 있어야 한다고, 모든 군인들을 죽어도 혁명신념 버리지 않는 불굴의 투사들로 키우기 위해서는 당이 제시한 5대교양을 강화하는데 힘을 넣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 직속중대의 병실, 교양실과 군인식당을 돌아보시면서 군인들의 생활을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싸움준비완성에서 후방사업이 중요한것만큼 군인들의 식생활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남새재배와 콩농사, 수산과 축산은 물론 양어를 잘하기 위한 사업도 해야 한다고 지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지금은 봄철영농기라고 하시면서 대련합부대 군인들이 농촌지원사업을 잘하여 군민관계를 개선하고 군민일치의 미풍을 더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64대련합부대가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대규모감자산지로 전변되고있는 백암지구 흙깔이전투에 동원되여 맡은 과제를 훌륭히 수행했으며 지금은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서 로력적위훈을 세우고있다고 하시면서 부강조국건설을 위해 헌신적인 투쟁을 벌리고있는 부대장병들에게 최고사령관의 전투적인사를 꼭 전해달라고 당부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대련합부대에 쌍안경과 기관총, 자동보총을 기념으로 주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군사과업을 수행하던 군인들이 기념사진촬영에 참가하지 못했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얼마나 섭섭해하겠는가, 발길이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면서 귀중한 시간을 내시여 그들을 모두 불러 기념사진을 또다시 찍으시는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은 군인들은 격정에 겨워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의 구호를 목메여 부르고 또 불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고 그들에게 손을 저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264대련합부대가 지키고있는 조국의 북변초소에 대하여 마음을 놓는다고 하시면서 전체 장병들이 만단의 전투동원태세에서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하는 사회주의조국을 총대로 굳건히 수호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였다.

대련합부대의 전체 장병들은 무적의 담력과 지략을 안겨주시고 한없는 믿음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에 대한 고마움에 솟구치는 격정을 누르지 못하면서 한몸이 그대로 성새, 방패가 되여 백두산대국의 위대한 태양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해갈 충정의 맹세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숭고한 동지적믿음, 열렬한 애국충정의 고귀한 증표
총련결성이후 지난 60년간 수많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국가수훈자, 명예칭호소유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자주, 자립, 자위로 위용떨치고 사람들의 자주적인 삶이 꽃펴나며 온 사회의 일심단결의 위력에 의하여 끝없이 륭성번영하는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은 해외동포들의 운명을 지켜주고 보살펴주는 진정한 어머니품입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으로 빛나는 우리 공화국은 평범한 사람들도 영웅으로, 애국자로 키워주는 한없이 은혜로운 어머니품이다. 피눈물의 그 세월 죽음의 고역장들에서 등살을 벗기우던 력사의 수난자들과 그 후손들인 재일동포들도 그 넓고 따사로운 품에 안겨 극적인 운명전환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사랑의 한품에 안으시여 조국과 민족이 알고 세상이 아는 참다운 혁명가, 열렬한 애국자로, 저명한 해외교포활동가로 키워주시였으며 애국위업의 한길에서 그들이 거둔 자그마한 성과들도 귀중히 여기시고 그 수고와 공로를 몇갑절 더 높이 평가해주시였다.

총련결성이후 지난 60년간 수많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이 **김일성**훈장과 **김정일**훈장, **김일성**상과 **김정일**상 등 공화국의 최고훈장, 최고영예상들을 수여받았으며 로력영웅으로, 조국통일상, 사회주의애국상수상자로, 인민교원, 공훈교원,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 인민배우, 공훈배우, 인민체육인, 공훈체육인으로, 원사, 교수, 박사로 자라났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일본과 같이 돈이 모든것을 지배하는 황금만능의 사회에서 애국의 신념과 의지를 가지고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는 총련일군들의 고상한 정신세계를 높이 평가하시면서 그들에게 크나큰 영광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조국의 통일과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사업에 한생을 바친 우리 혁명의 귀중한 원로, 로혁명가, 참된 애국충신, 해외교포운동의 명망높은 활동가라는 값높은 평가를 받아안은 한덕수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초대의장은 **김일성**훈장(세차례)수훈자, **김일성**상계관인, 2중로력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각별한 은정속에 그는 공화국명예원사, 교수, 박사의 명예칭호와 학위학직도 지니였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은혜로운 손길아래 년대와 세기를 이어 해외교포운동의 저명한 활동가로 값높은 생의 자욱을 새겼던 서만술 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도 **김일성**훈장(두차례)수훈자, 로력영웅이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는 **김정일**훈장이 제정되였을 때 그를 첫 수훈자들의 대오에 내세워주시였다.

위대한 장군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해외혁명동지라는 고귀한 믿음을 받아안은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도 **김일성**훈장(두차례), **김정일**훈장수훈자이며 로력영웅이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고지식하고 일밖에 모르는 충신이라고 하시며 남다른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신 리진규 전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제1부의장은 **김일성**훈장(두차례)과 **김일성**상, 로력영웅칭호를 수여받았으며 조국통일상수상자, 교수로 되였다. 이밖에도 수많은 총련일군들이 **김일성**훈장수훈자, 로력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의 영예를 지니였다.

차디찬 이역땅에서 온갖 민족적차별과 시시각각으로 덮쳐드는 파산의 위협속에서 한푼두푼 피땀으로 마련한 재부를 사회주의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해 아낌없이 바친 재일동포상공인들도 영광의 단상에 올랐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그들이야말로 자기 조국을 위하여 일하는 애국적상공인, 진보적상공인이라고 높이 평가해주시면서 주실수 있는 사랑을 다 부어주시였다. 안상택동포를 **김일성**훈장수훈자로, 2중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시고 수도의 모란봉기슭 풍치수려한 거리를 그의 이름으로 부르도록 하여주신 절세위인들의 크나큰 사랑은 오늘도 조국땅우에 뜨거운 동포애의 전설로 울려퍼지고있다.

박희덕 전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고문, 문병언 전 오사까부상공회 회장을 비롯한 수많은 상공인들이 **김일성**훈장수훈자로, 2중로력영웅, 로력영웅으로, 사회주의애국상수상자로 애국의 보람찬 삶을 빛내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총련의 교육일군들은 이역땅에서 우리 동포들의 민족성을 고수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위치에 있다고 하시며 그들에게 각별한 믿음과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오래동안 총련교육부문에서 사업하면서 학생들을 민족의 대, 총련의 대를 이어나가는 믿음직한 애국인재로 키워내는데 크게 기여한 남시우 전 총련 조선대학교 학장은 **김일성**훈장수훈자, **김일성**상계관인, 조국통일상수상자의 값높은 영예를 지니고 영생의 언덕에 올랐다.

지금으로부터 30여년전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총련 조선대학교 조선어연구소 소장이였던 박정문동포가 조선어연구와 관련한 학위론문을 집필하던중 순직하였다는 보고를 받으시고 조국의 권위있는 어학집단이 그의 론문을 완성시켜주도록 하시였으며 세상을 떠난 그에게 박사학위를 수여하도록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총련의 명맥인 민족교육을 굳건히 사수하기 위한 애국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폐교의 위기에까지 처하였던 학교를 구원한 리정애 총련 니시도꾜조선제2초급학교 교장도 로력영웅으로 내세워주시였다. 이들뿐아니라 수많은 총련교육자들을 인민교원, 공훈교원으로 키워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총련의 예술을 세계해외교포예술의 본보기로 빛내이시기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기울여주시고도 모든 공로를 동포예술인들에게 돌려주시였다.

가난한 로동자의 가정에서 태여나 토목공과 철공 등 사회의 최하층에서 헤매이던 전 총련 금강산가극단 배우 엄국지동포는 조국의 가수들보다 민요를 더 잘 부른다는 절세위인의 과분한 평가와 따뜻한 보살피심속에 조국인민들과 재일동포들의 사랑을 받는 공화국의 어엿한 인민배우로 자라날수 있었다. 그 뜨거운 사랑과 은정의 손길은 수많은 동포예술인들을 **김일성**상, **김정일**상계관인으로, 인민예술가, 인민배우, 공훈예술가, 공훈배우로 키워주었다.

어머니조국은 이역땅에서 조국의 영예를 떨치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한 재일동포체육인들의 소행도 높이 평가해주었다.

젊은 시절부터 일본무도계의 당당한 실력자로서 조선사람의 넋과 기개를 과시하고 우리 민족무술을 고수발전시키는데 적극 기여하였을뿐아니라 총련조직을 믿음직하게 보위한 강창수 전 총련권도연구원 원장도 **김일성**훈장수훈자로, 로력영웅, 조국통일상수상자로 영생의 삶을 누리고있다. 세계프로권투계의 왕자로 명성떨치며 세상을 떠들썩하게 한 홍창수선수도 어머니조국의 사랑과 은정속에 로력영웅, 인민체육인으로 성장하였다.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뜨거운 사랑은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무한한 신심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자양분으로 되였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을 끊임없는 앙양에로 떠밀어주는 강력한 추동력으로 되였다. 참으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이시야말로 숭고한 믿음과 의리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운명을 지켜주시고 애국애족의 한길에서 참된 삶을 누리게 하여주신 위대한 령도자, 한없이 자애로운 어버이이시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개척되고 전진하여왔으며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날로 강화발전되고있는 총련애국위업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없이 숭고한 동지적사랑과 믿음을 영원토록 잊지 않을것이며 대를 이어 베풀어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어버이사랑을 길이 전하며 애국의 화원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민족의 전설적영웅, 절세의 애국자

항일전구에 차넘쳤던 백두의 혁명정신으로 승리떨치리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일에 즈음하여

항일의 전구에 혁명의 계승자들의 대오가 흐른다.

항일빨찌산들이 부르던 혁명가요들과 최근에 새로 창작된 노래 《가리라 백두산으로》를 부르며 씩씩하게 행진해가는 대오앞에 붉은기가 펄펄 휘날린다.

혁명의 붉은기가 휘날리기 시작한 그날로부터 세월은 얼마나 멀리도 흘렀던가.

걸음걸음 간고했던 시련의 날과 달들이였다. 잊지 못할 그 나날들에 우리가 추켜든 혁명의 붉은기는 더 높이, 더 힘있게 나붓겼다.

백두의 혁명전통이 있었기에 우리는 력사의 준엄한 도전속에서도 언제나 백승만을 떨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무산지구전투는 보천보전투와 함께 우리가 국내에서 진행한 군사작전들가운데서 가장 규모가 크고 의의가 큰 전투였습니다.》

조국해방 70돐이 되는 뜻깊은 해에 무산지구전투승리기념일을 맞이한 우리의 심정은 류다르다.

우리의 눈앞에 대홍단혁명전적지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이 숭엄히 안겨온다.

총탄이 비발치는 격전장을 가리키시며 민족과 인민을 짓밟는 원쑤는 한놈도 놓치지 말고 무자비하게 쓸어버리라고 단호히 선언하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그날의 음성이 우리의 귀전에 금시라도 들려오는듯싶다.

추억의 노를 저어간다.

1930년대말 우리 혁명앞에는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계속 앙양시켜나가야 할 절박한 요구가 제기되였다.

당시 일제는 중일전쟁을 시급히 결속하고 남방으로 진출할 야망밑에 공고한 후방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선인민에 대한 경제적수탈과 파쑈적폭압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다.

일제가 조작한 《혜산사건》으로 하여 혁명조직들은 큰 피해를 입었다. 이러한 시기에 일제는 조선인민혁명군이 《전멸》되였다는 악의에 찬 기만선전으로 조국해방에 대한 인민들의 기대와 희망을 막아보려고 갖은 책동을 다하였다.

조성된 정세와 우리 혁명발전의 요구를 깊이 통찰하시고 국내에로 진출하여 적극적인 군사정치활동을 벌릴것을 결심하신 위대한 수령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북대정자회의에서 적극적인 반격전으로 일제침략자들에게 련속 타격을 가하고 국내진공작전준비를 갖춘데 기초하여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무산지구에로 진공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듯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그이께서 이끄시는 길이라면 한달음에 천리라도 만리라도 내달릴것만 같았고 험산준령도 가시덤불길도 두렵지 않았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이끄시고 압록강연안과 국경일대에서 춘기반격전을 벌리시였다.

월식을 리용하여 신묘한 유격전법의 위력을 과시한 유명한 전투가 이때 있은 반절구전투이다.

주체28(1939)년 5월 18일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인민혁명군 대오를 친솔하시고 압록강을 건너 조국땅에 진출하시였다.

조선의 장한 아들딸들을 한품에 안은 조국산천은 기쁨에 설레였고 그 품에 안긴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가슴에는 감격의 파도가 높뛰였다.

원쑤를 쳐부시는 가렬한 전투와 사나운 눈보라를 헤쳐가는 끊임없는 행군길에서도, 우등불타오르는 밀영의 깊은 밤에도 언제나 그 이름 부르며 용맹과 슬기를 얻고 새 힘을 가다듬군 하던 조국이였다.

열렬한 조국애와 더불어 투사들의 가슴마다에는 우리 강토를 강점한 일제원쑤들에 대한 끝없는 증오가 더욱 세차게 불타올랐다.

5월 20일 베개봉에 이르시여 소집하신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회의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대담하게 갑무경비도로를 따라 대낮에 행군하여 무산지구로 진출할데 대한 전술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을 받아안은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은 크나큰 환희에 휩싸였다.

놈들이 닦아놓은 도로로 그것도 밤이 아닌 대낮에 바로 그 원쑤를 치러 보무당당하게 행군해간다는것은 얼마나 통쾌하고 신이 나는 일인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부대를 이끄시고 5월 21일 베개봉을 떠나 삼지연못가에서 휴식한 다음 갑무경비도로를 대낮에 행군하여 무포에 도착하시였다.

일제놈들은 조선인민혁명군이 아무리 신출귀몰하는 전술로 맹활약을 벌린다 해도 갓 닦아놓은 갑무경비도로로 그것도 대낮에 행군해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생각할수록 통쾌하고 가슴벅찬 일이였다.

국내진공작전의 나날에 조선인민혁명군 대부대가 갑무경비도로에서 강행한 일행천리행군은 일제의 몇개 사단을 소멸한것보다 더 큰 정치적, 심리적타격을 준 특대사변이였으며 조선인민혁명군의 위용과 강인담대성을 보여준 승리적쾌거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포숙영지에서 열린 지휘관회의에서 행군과정을 총화하시고 전부대가 대홍단지구로 진격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5월 22일 국사당근처에서 7련대를 신개척방향으로 파견하신 다음 경위중대와 8련대를 인솔하시고 신사동으로 진출하시여 이곳 인민들앞에서 **《조국의 광복을 앞당기기 위하여 반일투쟁에 적극 떨쳐나서자》**라는 력사적인 연설을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무산지구에서 군사정치활동을 벌리시던 나날에 5월 23일 대홍단벌에서 적들을 격멸소탕하기 위한 작전을 승리적으로 조직지휘하시였다.

대홍단벌은 삽시에 원쑤격멸의 총성이 메아리치는 승리의 격전장으로 변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지휘하신 무산지구진공작전은 총대를 튼튼히 틀어쥐고 주체적립장에서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인민은 그 어떤 강적도 타승할수 있다는것을 다시금 과시한 일대 공격전이였으며 그것은 전반적조선혁명의 새로운 고조기를 열어놓은 분수령을 이룬것으로 하여 항일혁명투쟁사에 찬연히 빛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산지구전투를 승리에로 조직령도하신 때로부터 오랜 세월이 흘렀다.

그러나 세월이 흘러도 식지도 변하지도 않는것이 있다. 세대가 열백번 바뀐다고 하여도 끊임없이 계승되는것이 있다.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다.

항일의 전구들에 차넘쳤던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위대한 년대들에 승리만을 수놓아오게 한 무궁무진한 원동력이다.

지금도 혁명의 계승자들이 백두산지구 혁명전적지를 찾으며 가슴마다에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을 만장약하고있는것은 승리의 전통을 꿋꿋이 이어가기 위해서이다.

위대한 수령님 따라 무산지구에 진출하여 승리의 함성을 터쳐올린 항일유격대원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따라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승리의 함성을 터치자는것이 계승자들의 한결같은 심정이다.

항일혁명투사들이 승리의 신심드높이 조국으로 진군하던 기세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혁명정신과 창조적투쟁으로 최후승리의 령마루를 향하여 질풍같이 내달려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올해에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투쟁목표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 인민군장병들과 근로자들이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지난 4월에도 백두산에 오르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은 우리 군대와 인민이 심장속에 영원히 품고 살아야 할 숭고한 정신이라고 하시면서 이 정신을 안고 살면 세상에 무서울것도 없고 못해낼 일도 없다고 말씀하시였다.

모두다 백두령장의 신념과 의지를 가슴깊이 새기자.

천만군민은 백두의 넋과 기상을 안고 사상과 총대,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사회주의 내 조국의 존엄과 부강번영을 위한 총공격전에서 영예로운 승리자가 되여야 한다.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끊임없는 현지지도를 이어가시며 전체 군대와 인민을 최후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고계신다.

천만군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강행군속도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달리고 또 달려야 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천만의 심장마다에 더욱 더 깊이 새겨주신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초소와 일터마다에서 련이어 새 기준, 새 기록을 창조해나가야 한다.

죽어도 살아도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하여 만난을 헤치며 싸워 승리한 항일혁명선렬들의 필승의 신념과 불굴의 기개가 오늘 우리 천만군민의 심장마다에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언제나 그 언제나 선군조선은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승리떨칠것이다.

글 본사기자 김철혁
사진 본사기자 김성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514호 주체104(2015)년 5월 21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민족유산강사칭호, 공훈민족유산관리원칭호를 제정함에 대하여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오랜 력사와 전통을 고수하고 발전시키며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민족사적업적을 후세에 길이 빛내이기 위한 애국사업이다.

민족의 어버이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대성인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여 우리 민족의 현대력사를 찬연히 빛내여주시였으며 반만년의 민족사를 옳바로 정립해주시고 조선민족의 우수성을 세계만방에 떨쳐주시기 위하여 온갖 로고와 심혈을 다 바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애국애족의 숭고한 뜻을 빛나게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외진 산골에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누가 알아주건말건 자기 초소를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는 민족유산보호부문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을 애국자, 숨은 공로자들로 내세워주시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과 김정일애국주의를 심장깊이 새기고 민족유산보호사업에 순결한 량심과 애국의 마음을 바쳐가는 강사, 관리원들을 국가적으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1.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민족유산강사칭호, 공훈민족유산관리원칭호를 제정한다.

2.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공훈민족유산강사칭호, 공훈민족유산관리원칭호 수여규정을 승인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평양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에리트레아국가 대통령에게 축전을 보내였다

아스마라

에리트레아국가 대통령
이싸야스 아페워르키각하

나는 에리트레아독립 24돐에 즈음하여 당신과 귀국정부와 인민에게 열렬한 축하를 보냅니다.

나는 이 기회에 우리 두 나라사이의 친선관계가 더욱 강화발전되리라고 믿으면서 당신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것과 아울러 귀국인민에게 진보와 번영이 있을것을 충심으로 축원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
김영남

주체104(2015)년 5월 23일 평양

세월은 흘러도 승리의 력사를 전하여준다

대홍단전투를 지휘하시는 20대의 청년장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모습이 숭엄히 안겨온다.

지휘처로부터 적들과의 거리는 멀지 않았다. 하지만 한몸의 위험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곳에 나오시여 전투를 승리에로 이끄시였다.

언제 어디서나 대오의 앞장에서 간고하고도 준엄한 혁명의 길을 헤쳐나가시며 오직 승리와 영광의 력사만을 수놓아오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가슴속에 깊이 새겨진다.

기관총사격좌지!

오늘도 멸적의 총성이 들려오는듯싶다.

혁명의 사령부를 보위하여, 사랑하는 조국, 사랑하는 인민들의 피맺힌 원한을 풀어주려 원쑤들에게 복수의 불벼락을 안기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들의 억센 기상이 눈앞에 떠오른다.

통쾌한 전투의 증견자인 이깔나무들은 우리에게 말하여준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조국으로 진군하여 승리의 총성을 울린 항일혁명투사들처럼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따라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의 축포성을 높이높이 울리라고.

글 및 사진 본사기자 김진명

축지법에 녹아난 일제의 비명소리

대홍단혁명전적지에서 우리와 만난 강사동무는 무산지구진공작전의 승리로 하여 《무적황군》이라 뽐내던 일제의 허장성세가 거덜이 나고 패배자의 추악한 몰골이 온 세상에 드러난 반증자료들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한 전략전술과 주체적인 유격전법앞에서 수많은 병력을 내몰아 온 산판을 발칵 뒤지던 일제는 헛물만 켜고말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유인전술에 감쪽같이 속아넘어간 일제는 《김일성공산군은 5월 18일 함남도 갑산군 보천면 포태리목재장을 습격하고…3호물동으로부터 포위망을 뚫고 24도구오지를 향하여 돌아갔다.》라고 얼빠진 소리를 하면서 조선인민혁명군의 향방을 찾지 못하고 허둥지둥 산속에서 헤맴으로써 세상을 웃겼다.

이처럼 산속을 돌아치던 일제침략자들은 대홍단벌에서 청천벽력과 같은 섬멸적타격을 받았다. 놈들은 대홍단의 진펄속에 널린 수백을 헤아리는 많은 주검과 부상자들을 실어나르기에 급급하였다. 장교놈들은 주검과 부상자들을 실은 자동차를 라남의 군대병원까지 몰고간 운전사들에게 《군대부상자들을 많이 싣고왔다는 이야기만 하면 너는 당장 죽는다.》고 눈을 부라리면서 위협하였다 한다.

일제침략자들은 무산지구전투에서 무리죽음을 당하고 녹아난 제놈들의 패배상이 세상에 드러나는것이 무서워 이렇게 인민들을 위협하고 보도관제까지 하였으나 결코 진상을 가리울수는 없었다.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경성일보》는 도꾜에서 진행되고있던 일본전국경찰부장회의에 참가했던 놈들이 얼마나 질겁하고 공포에 떨며 비명을 질렀던가에 대하여 이렇게 전하였다고 한다.

《때마침 그때에 개척동의 습격사건에 대하여 이쪽(무산쪽을 말함)에서 연방 전보가 오므로 모두가 몹시 근심하고있었다. 마치도 함북이 유격대의 무서운 위력밑에라도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모양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일행천리전술에 따라 베개봉일대에 있던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가 대낮에 갑무경비도로로 100여리를 단숨에 행군하여 무산지구에 나타나 총성을 울리자 포태산일대에서 헤매던 적들은 《공산군이 어느결에 무산에 나타났는가. 김일성장군이 축지법을 쓴다는것이 과연 사실이구나!》하며 아우성을 쳤다고 한다. 적들은 조선인민혁명군에 대한 《토벌》에 나설 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축지법을 생각하며 전률하다가 변화무쌍한 전법에 녹아나군 하였고 우리 인민들은 그 축지법을 무한한 긍지속에 자랑하며 이야기꽃을 피웠다.

《김일성장군님은 하늘을 마음대로 날아다니신다.》

《김일성장군님은 땅을 주름잡아 하루에 천리를 달리신다.》

《김일성장군님께서는 압록강에 종이 한장을 띄우시고 군사를 건늬시였다.》

우리는 통쾌함을 금할수 없었다. 그리고 생각하였다.

오만무례한 미제가 우리를 어째보려고 숱한 신형무장장비들을 끌어다놓고 허세를 부려도 우리에게 감히 접어들지 못하는것을 보면 백두산호랑이에게 걸려들어 기를 못 펴던 일제의 신세와 꼭 같다는것을.

특파기자 전철주

전설같은 동포애의 서사시, 성스러운 애국충정의 력사는 영원하리라

태양의 빛발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해온 총련의 60년 로정을 더듬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우리 조국과 인민은 애국애족의 선각자, 애국충정의 모범인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가지고있는것을 커다란 긍지와 자랑으로 여기고있습니다.》

우리 인민들은 총련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총련동포들을 더없이 사랑한다. 어머니조국을 찾아온 동포들을 볼 때면 오래동안 헤여졌던 한식솔을 만난듯 눈길에는 반가움이 한껏 어리고 바람세찬 이역땅에서 수령과 조국을 옹호하고 총련조직을 사수하며 민족성을 꿋꿋이 지켜나가는 그들에 대한 미더움으로 가슴 부풀어오른다.

누구나 한결같이 말한다. 총련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고귀한 애국유산이며 모진 고난속에서도 신념을 변치 않고 충정의 한길을 변함없이 걷고있는 총련동포들이야말로 애국자들이라고.

총련동포들도 한없는 긍지에 넘쳐 소리높이 웨친다.

총련은 우리 수령님의 총련, 우리 장군님의 총련, 우리 원수님의 총련이며 조국인민들과 더불어 우리도 존엄높은 태양민족의 당당한 한식솔이라고.

주체의 길, 애국애족의 길을 꿋꿋이 걸어온 불패의 대오, 총련이 결성 예순돐을 맞이한다. 열화같은 믿음과 동포애, 고결한 애국충정의 년륜으로 수놓아진 총련의 60년 로정을 더듬어보는 이 시각 우리의 가슴가슴은 재일조선인운동사에 불멸의 업적을 쌓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세차게 끓어오르고있다.

운명의 피줄맺은 그날로부터

력사에는 무표정한 년대가 없다고 하지만 태양의 빛발아래 전진해온 총련의 60년 력사야말로 범상치 않은 격동의 년대기들로 빛나고있다. 그 탄생과 강화발전, 지도리념과 투쟁로정 등 그 어느것이나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 뜨거운 동포애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는 총련이다.

식민지노예의 쓰라린 과거와 존엄높은 자주강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서의 값높은 영예가 엇갈려 안겨오는 추억의 령마루에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운명을 구원해주고 빛내여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에 대한 한없는 감사의 정으로 가슴을 적시고있다.

예로부터 해외동포들은 민족이라는 대하에서 튀여나온 물방울에 비유되였고 그들의 력사는 례외없이 수난의 력사로 불리워왔다. 우리 민족의 불행에 찬 해외류랑의 력사는 일제의 조선침략으로부터 시작되였다. 그 불우한 행렬가운데서 최악의 처지에 있던 사람들이 다름아닌 재일동포들이였다.

이런 자료가 있다.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날조되기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 사는 조선사람들의 수는 수백명에 불과하였다. 그런데 1945년 일제패망당시에는 그 수가 무려 240만명에 달하였다. 그 절대다수가 일제의 총칼에 떠밀리워 강제로 끌려온 사람들이였다. 당시 《침목한개에 조선사람 한명》이라는 말이 통용될 정도로 죽음의 유령이 배회하는 살인고역장들에서 그들의 생명은 파리목숨이나 같았다. 얼음판에 떨어진 씨앗과도 같이 차디찬 이역의 대지에 뿌려졌던 재일동포들, 그들이야말로 우리 민족사의 가장 비참한 수난자들이였다.

민족의 위대한 태양의 품에 안긴 그들의 운명에서는 말그대로 극적인 전환이 일어났다.

일찌기 항일혈전의 그 나날 《조국광복회10대강령》을 작성하실 때에도 재일동포들을 비롯한 해외동포들을 마음속에 그려보시며 한자두자 조항을 새겨넣으시였던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조국이 해방된 이듬해 《재일 100만 동포들에게》라는 력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여 애국열의로 불타던 재일동포들에게 무한대한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시였다.

날바다에서 표류하는 쪽배처럼 우여곡절의 풍랑속에서 방황하던 재일조선인운동을 구원해주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해외교포운동은 비록 이국땅에서 진행되지만 어디까지나 주체적립장에서 자기 나라 혁명에 참답게 이바지하는 민족적애국운동으로 되여야 한다는 그이의 위대한 로선전환방침은 동포들의 머리우에 드리웠던 절망의 짙은 구름장을 뚫고 비쳐든 은혜로운 소생의 빛발이였다.

주체44(1955)년 5월 25일 총련의 결성으로 재일조선인운동은 마침내 애국의 돛을 달게 되였다. 어머니조국과 운명의 피줄을 맺은 참으로 뜻깊은 날이였다. 이 력사의 날이 있어 애국애족의 선각자, 애국충정의 모범,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자랑높은 총련의 어제와 오늘, 래일이 지녀지게 되였다.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총련)는 드디여 해살도 한결 눈부시며 신록이 춤추는 5월 25일 름름히 새 출발을 했다. …이것은 오로지 영명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신 우리들만이 능히 달성할수 있는 자랑이며 또 하나의 승리이다. …우리는 이날을 얼마나 고대하고 주목했던가! 또한 이 력사적인 전환을 저애하려고 내외의 적들의 음모와 도발책동은 얼마나 혹심했던가! 재일 60만은 그를 물리치고 기어이 승리하고야만것이다.》

당시 《해방신문》에 대서특필되였던 이 기사에는 공화국의 기치아래 보람찬 애국투쟁의 길에 나서게 된 재일동포들의 격동과 환희가 그대로 어려있었다.

절세위인들의 현명한 령도밑에 존엄높은 자주의 나라로, 강위력한 선군의 조국으로,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위용떨치는 우리 공화국은 재일동포들이 바람세찬 이역땅에서도 추호의 흔들림없이 애국위업의 한길을 꿋꿋이 걸어올수 있게 한 억척의 지지대였다.

동해의 파도너머 들려오는 조국의 자랑찬 소식, 천하제일위인들을 높이 모시고 주체의 한길에서 민족의 존엄을 떨쳐가는 어머니조국의 드높은 숨결은 재일동포들에게 있어서 신념과 투쟁의 활력소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동포애는 그 얼마나 동포들의 가슴을 끓이였던가.

일찌기 10대의 어리신 나이에 이국살이의 설음이 어떤것인가를 너무도 가슴아프게 체험하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남달리 아끼고 극진히 위해주시며 온갖 사랑과 은정을 아낌없이 베풀어주시였다. 재더미밖에 남지 않았던 전후의 어려운 시기에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해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시는 사랑의 전통을 마련하여주신분도, 재일동포들의 귀국의 배길을 열어주시여 자본주의로부터 사회주의에로의 민족대이동의 새 력사를 펼쳐주신분도,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조국을 방문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을 몸가까이 부르시여 최상의 영광과 행복을 안겨주신분도 우리 수령님이시였다.

이역땅에서 고생하는 총련동무들을 생각하면 잠이 오지 않는다고, 조국을 방문한 재일동포들을 만날 때가 제일 기쁘다고 하시며 조국과 민족을 위한 애국애족의 길에서 세운 공헌도 값높이 평가해주시고 그들의 애국충정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나도록 하여주신 우리 수령님, 그 자애로운 영상을 천만년세월이 흐른다한들 동포들이 어찌 한시도 잊을수 있겠는가. 하기에 재일동포들은 오늘도 수령님의 높고 큰 이 사랑을 산이나 바다에 그 어이 비기랴고, 주시고주신 그 사랑 총련의 세월을 펼치여 우리 아들딸들을 하나같이 키워주셨다고 눈물겹게 노래부르고있는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리켜주신 주체의 한길, 애국애족의 한길로 힘차게 전진하도록 걸음걸음 이끌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현명한 령도아래 총련애국위업은 끊임없는 강화발전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은 이런 일화가 있다.

주체45(1956)년 12월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평양제1중학교 3학년 1반 학생들과 함께 총련 야마구찌조선제1중급학교 3학년 1반 학생들에게 수십통의 격려편지와 조국에서 출판된 귀중한 도서들을 보내주시였다. 장군님께서 친히 쓰신 편지에는 재일동포 새 세대들이 아버지 김일성원수님을 높이 모신 조선의 아들딸들로 름름히 자라나 인생의 첫걸음을 애국의 길에서 힘차게 떼기 바란다는 믿음의 글발이 새겨져있었다.

이처럼 일찌기 어리신 시절부터 총련의 강화발전과 재일동포들의 운명문제에 깊은 관심을 돌리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혁명령도의 전기간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재일동포들이 애국애족의 한길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이도록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시였다.

선군의 기치를 높이 드시고 제국주의자들의 고립압살책동을 짓부시며 사회주의수호전을 승리에로 이끄시던 나날에도 우리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조국과 함께 시련을 헤쳐나가는 총련이 자리잡고있었다.

그이께서 준엄한 시련의 시기에 총련과 재일동포들에게 보내주신 력사적인 서한 《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킬데 대하여》는 주체적재일조선인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가 집대성된 불멸의 총서였다. 줴기밥과 쪽잠으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는 속에서도 자신의 마음은 언제나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과 함께 있다고 하시며 베풀어주신 그이의 한량없는 믿음은 이역의 아들딸들의 가슴속에 필승의 신심이 용솟음치게 한 원동력이였다.

정녕 우리 수령님께서 계셨기에 총련은 주체의 항로우에 애국의 돛을 올릴수 있었으며 우리 장군님께서 이끄셨기에 최악의 고난속에서도 주저앉지 않고 아름다운 미래가 약속된 애국의 한길로 줄달음쳐올수 있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존함은 그대로 재일동포들의 운명이였고 힘이였으며 승리였다. 그 위대한 품에 운명의 피줄기를 이었기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모진 시련과 고난속에서도 신념을 변치 않고 성장과 희망과 헌신의 기쁨속에 애국의 긍지를 노래하며 값높은 생의 보람을 누려올수 있었다.

한식솔로 품어주신 어버이사랑

부모들은 자식을 처음에는 두팔로 안고 다니다가 자란 다음에는 마음속에 안고 다닌다는 말이 있다. 위대한 수령님들께서는 바람세찬 이역땅에서 모진 세파를 헤쳐나가는 자식들을 두고 어느 한시도 마음을 놓지 못하시였다. 태양의 존함과 더불어 빛나는 총련의 년대기들마다에는 이역의 아들딸들을 위해 베푸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정을 전하는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새겨져있다.

예로부터 하루 은혜 백날 갚는다고 하였지만 태양의 품속에서 재일동포들이 받아안은 은정이야말로 천날만날을 바친대도 다 갚을수 없는 참으로 고귀한것이다.

즐거운 일이 있으면 그 기쁨을 함께 나누자고 조국으로 불러주시고 방문일정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조국을 떠나는 동포들인데 아무리 바빠도 꼭 만나주어야 한다고 하시며 머나먼 현지지도의 길에서 서둘러 돌아오시던 자애로운 어버이.

재일동포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은 가장 숭고하고 헌신적이며 가장 따사롭고 열렬하며 가장 폭넓고 웅심깊으며 가장 자애롭고 다심한 태양의 사랑이였다.

오늘도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조국의 사랑은 따사로워라》, 이 노래를 눈물없이는 부르지 못한다. 이역에서 나서 자라는 아들딸들도 지덕체를 갖추어 사회주의조국의 역군이 되기를 바라시는 친어버이심정으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해마다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 그것은 정녕 영원히 마를줄 모르는 은혜로운 사랑의 젖줄기였다.

밤낮이 따로없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총련민족교육을 위한 교육원조비와 장학금문제가 자리잡고있었다. 공장과 농촌들에 대한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에서도 늘 재일동포자녀들을 생각하시며 그들에게 해마다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주자고 하여도 생산을 더 늘여야 한다고 간곡히 당부하시던 어버이수령님, 총련의 후대들을 키우는 일이라면 나라의 재부를 다 보내주고싶다고, 총련에 보내는 교육원조비라면 아까울것이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의 그 자애로운 영상을 동포들 누군들 정녕 잊을수 있겠는가. 하기에 그들은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들께서 총련의 민족교육에 남기신 고귀한 유산이라고 심장의 목소리를 터치는것이다.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영원히 잊지 못한다.

나는 언제나 동무들과 함께 있다고, 동무들의 뒤에는 내가 서있다고, 우리는 운명을 같이해야 할 한집안식솔이라고 하시던 장군님의 그 하늘같은 믿음의 말씀을, 잘 가라는 말보다 잘 갔다오라는 말을 하고싶다고 하시며 오래도록 바래워주시던 정깊은 어버이의 그윽하신 그 눈길을.

주체81(1992)년 4월 28일, 총련애국운동사에 영광과 행복의 날로 아로새겨진 이날의 화폭은 돌이켜볼수록 참으로 가슴뜨겁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어버이수령님의 탄생 여든돐과 조선인민군창건 예순돐을 경축하여 조국에 온 총련일군들과 상공인들, 예술인들을 위해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시였다. 자애로운 어버이를 한자리에 모시고 조국과 총련의 한식솔들이 스스럼없이 어우러진 장내는 위대한 가르치심과 충정의 결의로 숭엄하고 랑만과 웃음, 노래와 춤으로 흥겨웠다. 그때는 행복에 겨운 나머지 동포들 누구도 미처 알지 못하였다. 분과초를 쪼개가며 일하시면서도 늘 시간이 모자라 안타까와하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자기들을 위해 무려 6시간반이라는 귀중한 시간을 아낌없이 바쳐주신줄은.

오늘 저녁은 바쁜 일이 제기되여도 전화를 하지 말라고 이르고 왔으니 마음놓고 실컷 이야기하자고 하시며 한가정의 단란한 분위기를 펼쳐주신 어버이장군님, 이역의 아들딸들은 친아버지에게 응석부리듯 그이께 스스럼없이 안겨들며 저마다의 자랑거리도, 가슴속에 품고있던 시름과 걱정거리도 숨김없이 아뢰였다. 그날의 뜻깊은 연회장에 흘러넘치였던 따뜻한 정은 그대로 령도자와 총련동포들, 조국인민들과 총련동포들은 피를 나눈 한식솔의 관계임을 세상에 전하여주었다. 이토록 자애로운 어버이, 위대한 스승의 손길아래 이역의 아들딸들의 성장의 도표가 그려졌다.

그 사랑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불굴의 애국신념을 새겨주고 로당익장의 활력을 주었으며 영생의 삶을 안겨주었다.

망망대해에도 끝이 있고 기슭이 있지만 총련을 생각하시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마음은 기슭도 끝도 없는 무한대한 우주의 세계였다. 그 위대한 품에 운명도 미래도 맡기였기에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참기 어려운 시련의 고비, 고난의 언덕을 넘고 헤치며 주체혁명위업의 완성과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한 애국의 길에 힘과 열정, 지혜를 다 바쳐올수 있었다.

세계에는 수많은 해외교포조직이 있지만 자기 조국과 민족에 대한 충정의 열도에 있어서나 조직의 규모와 활동범위, 단결력과 전투력에 있어서 총련과 같이 애국애족적이며 강위력한 해외교포조직은 없다. 한식솔로 품어주고 이끌어주신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그 뜨거운 사랑이 이런 경이적인 현실을 펼치였다. 참으로 총련이 걸어온 지난 60년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주체적해외교포운동사상리론과 탁월한 령도의 위대한 승리의 력사인 동시에 절세위인들의 한없이 숭고한 동포애, 민족애로 수놓아진 사랑의 력사이다.

최후의 승리향해 총련 앞으로!

사나운 광풍이 마지막악을 쓰고있다. 총련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결성된 첫날부터 어떻게 하나 없애버리고 재일동포들을 우리 공화국의 품에서 떼여내려고 별의별 모략과 탄압에 광분해온 내외반동들의 책동이 더욱 극도에 달하고있다.

하지만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배심은 든든하고 기세도 충천하다.

풍파사나운 시대의 한복판에 서시여 력사의 키를 억세게 틀어쥐고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존귀하신 영상에서 그들은 민족의 륭성번영과 총련의 밝은 미래를 보고있다.

그이를 만나뵈온 동포들은 한결같이 말한다.

따뜻한 체온, 친근한 눈빛, 인자하고 름름한 모습, 만사람을 끌어당기는 거대한 견인력, 어쩌면 우리 수령님과 장군님 그대로이실가, 사상도 령도도 덕망도 태양의 혈통, 백두의 혈통을 그대로 이으신 절세의 위인을 모신것은 얼마나 큰 행운인가고.

누구나 신심에 넘쳐 웨친다.

망국의 그 세월 남들처럼 크지도 세지도 못해 부끄럽다고 울며 한탄하던 약소민족의 설음은 이젠 옛말로 되였다. 보라, 백두의 칼바람으로 압살의 먹구름을 가르고 세상천지를 진동시키는 주체조국, 선군조선의 억센 기상을.

경애하는 원수님의 특출한 위인적풍모와 탁월한 정치실력에 의하여 그 존엄과 위력이 민족사상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고 세기를 주름잡는 비상한 속도로 천하제일강국으로 솟구쳐오르는 조국의 모습은 재일동포들에게 공화국의 해외공민된 끝없는 긍지와 함께 천백배의 힘과 용기를 북돋아주며 총련의 새 전성기개척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있다.

승리의 신심이 차넘치는 동포들의 심장속에 위대한 어버이의 엄숙하고도 사랑넘친 선언이 메아리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나는 수령님께서 무어주시고 장군님께서 이끌어주신 총련과 언제나 함께 있을것입니다.

재일조선인운동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나아가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앞길에는 빛나는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구절구절 얼마나 믿음과 정과 사랑이 넘치는 말씀인가.

재일동포들은 두터운 정을 안고 사는 하나의 혈육이라고 하시며 주체의 애국유산인 총련을 귀중히 여기고 백방으로 보호할것이며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존엄높은 삶과 밝은 미래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할것이라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뜻깊은 말씀, 그이께서 총련에 보내주신 사랑의 축전과 축하문들에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랑이 그대로 어려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그이의 뜨거운 동포애, 민족애에 동포들의 가슴은 맹세로 높뛴다.

총련의 운명이시고 미래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나가는 해외혁명전우, 해외혁명동지가 되여 주체혁명위업, 총련애국위업의 천만리길을 끝까지 이어나가자. 심장으로 택한 성스러운 애국의 길 끝까지 이어가자.

주체사상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들고 충실성의 전통, 일심단결의 전통, 애국애족의 전통을 굳건히 이어나가라는것은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이다. 그 간곡한 유훈을 기어이 관철하여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놓기 위해 전 총련조직이 부글부글 끓고있다.

얼마나 미더운 모습인가.

총련동포들이야말로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충정으로 높이 모시고 변함없이 따르는 길에 애국위업의 최후승리가 있고 자기들의 영원한 행복이 있다는 진리를 뼈에 사무치게 체험한 사람들이다. 내외반동들이 아무리 발악해도 그들을 공화국의 품에서 절대로 떼여낼수 없으며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나아가는 이 도도한 흐름을 결코 멈춰세울수 없다.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총련 앞으로!

폭풍에도 굽힘없는 의지를 주고 애국의 신념을 벼려주는 백두산, 필승의 넋을 주는 태양의 성산을 마음속에 안고 사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이 세상이 천만번 변한다 해도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받들어 애국애족의 천만리길을 억세게 걸어나갈것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께서 축복해주시고 주체의 우리 조국이 지켜주고 보살펴주고있기에 총련은 끄떡없으며 재일조선인운동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우리 인민이, 온 겨레가 그것을 굳게 믿는다.

본사기자 허영민

우리의 정의로운 핵억제력강화에 도전해나서는자들은 참혹한 종말을 면치 못할것이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대변인성명

최근 우리가 전략잠수함 탄도탄수중시험발사에 성공하여 자위적군력강화에서 또 하나의 큰걸음을 내디딘 특대사변은 날이 갈수록 세계를 경탄시키고있으며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을 극도의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정당한 군사력강화조치를 감히 걸고들며 추태를 부리고있는것과 관련하여 우리 국방위원회는 정책국대변인성명을 통해 원칙적립장을 명백히 밝히였다.

우리가 소형화, 다종화되고 고도로 정밀화, 지능화된 최강의 타격수단들로 임의의 장소에서, 임의의 시각에 결심한대로 침략자, 도발자들을 일격에 격멸소탕할수 있게 되였다는데 대해서도 숨김없이 공개하였다.

이것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끊임없는 위협과 도발을 물리치고 민족의 존엄과 나라의 자주권을 수호해나가기 위한 가장 정정당당한 선택으로서 우리 공화국의 합법적인 권리이며 이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시비할수 없다.

그런데 남조선괴뢰들은 우리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성명이 나가자 또다시 불맞은 송아지처럼 날뛰며 미국에 편승하여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미친듯이 날뛰고있다.

지금 괴뢰패당은 매일같이 《심각한 위협》이니, 《도발행위중단》이니 뭐니 하고 고아대고있는가 하면 유엔안전보장리사회에 그 무슨 《서한》을 보내는 추태까지 부리고있다.

지어 박근혜까지 나서 《예측불가능성대비》니, 《유엔결의위반》이니 하면서 반공화국대결소동을 앞장에서 충동질하고있다.

괴뢰군부깡패들은 그들대로 일촉즉발의 열점지역인 최전연일대를 싸다니며 《초토화》니, 《제압》이니 하는 악담질로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고있으며 내외여론이 무서워 감히 꺼내들지 못했던 미국의 고고도요격미싸일체계 《싸드》를 남조선에 끌어들일 기도를 공공연히 드러내놓고있다.

미국의 악의에 찬 험담에 장단을 맞추어 놀아대는 괴뢰패당의 이러한 도전적망동은 우리의 비약적인 군사력강화에 얼이 빠지고 극도로 겁에 질린 친미주구들의 가련한 추태이고 단말마적발악이다.

원래 남조선괴뢰패당은 미국상전의 사타구니에 붙어 민족의 존엄과 리익을 팔아먹고 반공화국압살책동에 돌격대로 나서 조선반도의 긴장과 전쟁위험을 증대시켜온 추악한 매국배족무리로서 감히 우리의 신성한 자위적핵억제력에 대해 왈가왈부할 초보적인 체면도 자격도 없다.

우리의 핵억제력이 없었더라면 지구상에서 제일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전 조선반도를 병탄하기 위해 끊임없는 침략의 마수를 뻗치고있는 미국에 의해 우리 민족은 돌이킬수 없는 참화를 입었을것이다.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제국주의자들의 강권과 전횡에 의해 참혹한 분쟁과 충돌, 전란에 휘말려 불행과 재난을 겪을수밖에 없는것이 오늘의 엄혹한 현실이다.

괴뢰패당은 나라가 분렬되고 정세가 항시적으로 긴장되여있는 첨예한 환경속에서 우리 겨레의 안녕과 조선반도의 평화가 과연 누구에 의해 어떻게 지켜지고있는지 똑바로 알고 입부리를 놀려대야 할것이다.

우리의 자위적핵무장력이야말로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수단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시비의 대상이 될수 없으며 더우기 괴뢰따위가 떠든다고 하여 흔들릴 우리의 핵보검이 아니라는것쯤은 알아야 한다.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고 정세를 격화시키고있는 진범인으로 력사의 심판을 받아야 할자들은 다름아닌 미국과 남조선괴뢰패당이다.

미국이 집요하게 추구하고있는 대아시아지배전략은 이미 모험적인 실천단계에 들어섰으며 일본반동들과 남조선괴뢰패당이 그 돌격대로 나서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미국은 전범국가인 일본의 족쇄를 풀어주어 군국주의길로 내모는 한편 남조선에 대한 《싸드》배치를 다그치면서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침략무력을 대대적으로 증강하고있다.

괴뢰패당은 전쟁과 침략의 괴수인 미국에 추종하여 북침전쟁도발에 미쳐날뛰면서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사태를 몰아옴으로써 우리 겨레의 안전과 지역정세를 엄중한 위험에 빠뜨리고있다.

이러한 평화파괴자, 호전광들이 우리의 핵억제력을 《위협》으로 걸고들며 《제재》니 뭐니 하는것이야말로 흑백을 전도하고 세계량심을 우롱하는 가장 뻔뻔스럽고 파렴치한 궤변이다.

오늘 우리의 핵억제력은 그 누구에게 위협으로 되는것이 아니라 미국의 패권야망을 최전방에서 저지시키고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 가장 정의롭고 책임적인 사명을 수행하고있다.

괴뢰패당이 조선반도는 물론 지역정세를 악화시키는 저들의 더러운 정체를 합리화하기 위해 우리의 군력강화조치를 헐뜯고 국제사회의 이름까지 도용하여 《제재》를 떠들며 발광하지만 그 누구도 우리의 정당한 자위권행사를 가로막을수 없다.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제재나 압박도 우리에게는 절대로 통할수 없으며 오히려 우리 군대와 인민에게 떨쳐의 의지와 보복열기를 백배, 천배로 북돋아줄뿐이다.

괴뢰패당이 우리를 악랄하게 걸고들수록 추악한 매국배족적정체만을 만천하에 더욱 드러내게 될것이며 불구대천의 원쑤인 미제침략자들과 함께 가장 비참한 파멸을 면치 못할것이다.

위대한 병진로선의 기치아래 정의와 평화의 방패, 민족자주의 보검인 자위적핵억제력을 틀어쥐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해나가려는 우리의 신념과 의지는 억척불변하다.

남조선괴뢰패당은 우리의 정의로운 핵억제력강화를 걸고드는 부질없는 추태가 초래할 파국적결과에 대해 심사숙고하고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주체104(2015)년 5월 24일
평 양

2015년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녀성대행진 출정식 진행

【평양 5월 23일발 조선중앙통신】조국해방 일흔돐이 되는 올해에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열망이 뜨겁게 분출되고있는 속에 2015년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녀성대행진이 평양에서 시작되였다.

국제녀성대행진 출정식이 23일 조국통일3대헌장기념탑앞에서 있었다.

출정식장에는 《분렬된 조국을 하루빨리 통일하자!》, 《자주적이며 평화롭고 친선적인 새 세계를 건설해나가자!》, 《세계평화애호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자!》 등의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세계인민들과의 련대성 조선위원회 위원장인 김정숙 대외문화련락위원회 위원장, 평양시내 녀성들과 2015년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녀성대행진을 진행할 대표단성원들이 출정식에 참가하였다.

출정식에서는 매어리드 매과이어 아일랜드의 반전평화활동가가 연설하였다.

그는 조선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행진을 시작하는 자기들에게 믿음을 준데 대하여 사의를 표한다고 말하였다.

지난 조선전쟁과 전후에도 계속된 전쟁책동의 후과로 조선녀성들이 겪은 헤아릴수 없는 고통과 재난에 대하여 대표단의 이름으로 진정으로 가슴아프게 생각한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대표단의 많은 성원들이 지난 조선전쟁에 참가하였거나 조선이 장장 70년동안 분렬되여있게 하는데서 책임이 있는 나라들에서 온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전쟁의 참화를 과거의 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김정숙위원장이 축하연설을 하였다.

그는 2015년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녀성대행진 출정식이 평양에서 진행되는데 대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하면서 이를 열렬히 축하하였다.

국제녀성대행진이 조국해방 일흔돐을 맞는 뜻깊은 올해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온 민족이 힘을 합쳐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고있는 속에서 진행되는것으로 하여 더 큰 의의를 가진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그는 항시적으로 떠돌고있는 전쟁위험을 이 땅에서 하루빨리 끝장내려는것은 전체 조선녀성들의 한결같은 념원이고 의지이며 정의와 평화를 사랑하는 전세계녀성들의 지향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대행진이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지지성원하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더욱 고조시키며 녀성들의 단합된 힘을 시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리라는 굳은 확신을 표명하였다.

이어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녀성대행진 선언이 랑독되였다.

선언은 올해가 조선해방 70돐이 되는 해인 동시에 조선민족이 외세에 의하여 분렬된지 70년이 되는 해이라고 강조하였다.

오랜 세월 분렬의 고통을 겪고있는 조선인민의 가슴아픈 비극을 세계가 더는 그대로 보고만 있을수 없다는데 대하여 선언은 지적하였다.

선언은 세계의 공고한 평화와 안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세계 진보적녀성들은 조선녀성들과 굳게 손을 잡고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녀성대행진을 계속해나갈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조선은 하나다》노래가 주악되는 속에 국제녀성대행진 참가자들은 평양시 녀성들의 열렬한 축하를 받으며 개성을 향해 출발하였다.

언제나 백두산을 안고 사는 전쟁로병화가

중구역 련화2동 33인민반에 사는 인민예술가 리률선동무

82살,

사람들은 아마 고령의 그 나이에, 그것도 한쪽다리를 잃은 불편한 몸으로 고도의 정신력과 피타는 사색, 왕성한 정력을 요구하는 미술창작의 세계를 질주하는 전쟁로병화가가 있다고 하면 선뜻 믿지 못할것이다.

백발을 이기게 하는 힘, 무한한 창조의 열정을 낳게 하는 샘줄기는 과연 무엇일가. 호기심을 안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찾은 우리앞에 하나의 큰 화폭이 펼쳐졌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백두산은 민족의 넋이 깃든 조선의 상징이며 우리 혁명의 뿌리가 내린 혁명의 성산입니다.》

금시라도 따웅소리를 지르며 화판밖으로 뛰쳐나올것만 같은 호랑이, 무섭게 태질하는 백두의 칼바람속에서도 앞발을 뻗친채 사납게 노려보는 도고한 기상…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살며 투쟁할데 대한 경애하는 원수님의 올해 신년사의 전투적호소를 받아안고 흥분된 마음을 금할수 없어 화판우에 붓을 달리기 시작했다는 그는 중구역 련화2동에 사는 리률선화가였다.

얼마전에는 또 한분의 백두산장군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을 찾으셨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접하고보니 낮이나 밤이나 이 화판앞에서 떠나고싶지 않다고, 어떻게 하나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그토록 강조하시는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펄펄 살아숨쉬는 명작으로 완성할 생각뿐이라고 화가는 열정에 넘쳐 말하였다.

백두산과 전쟁로병화가,

알고보니 백두산에 대한 그의 사랑의 감정은 어제오늘에 시작된것이 아니였다.

《사람들은 흔히 날보고 백두산호랑이화가라고들 합니다. 아마도 내가 나이 80이 지나도록 여직 화판곁을 떠나지 못하고 창작에 몰두하고있는것도 백두산이 안겨주는 열정과 락판때문인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의 그림들을 담은 사진들을 보면서 전쟁로병화가의 진정의 세계를 더 잘 알수 있었다.

작품들마다에 백두의 기상이 차고넘치였다. 그가운데는 화폭의 길이가 3m를 훨씬 넘는것도 있었다. 각이한 각도에서 각이한 형상으로 백두산의 억센 기상을 기묘한 화법으로 형상해낸 작품들은 바라볼수록 우리 마음을 백두산악의 정수리에 올려세워주었다.

추억을 더듬는 리률선화가의 이야기는 어느덧 해방전에로 거슬러올랐다.

황해북도의 어느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집에서 태여난 리률선화가의 유년시절은 눈물속에 흘러갔다. 3살적부터 그림신동으로 불리운 그의 재간은 온 동리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다. 마을에서 공연된 극작품을 보고 창호지에 극의 여러 장면을 순식간에 그려놓아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지만 나라잃은 그 세월에는 남다른 재간이 오히려 화가 되여 사방에서 부자들의 뭇매를 맞기가 일쑤였다. 게다가 모진 세상에서 일찍 아버지까지 여의였다. 그러한 때에 제일 큰 힘이 된것은 백두산에서 들려오는 항일유격대의 투쟁소식이였다.

삼천리강토에 백두산호랑이로 소문이 자자한 항일빨찌산 김대장에 대한 이야기는 남달리 감수성이 빠른 그의 예술적령감에 불을 지펴주군 하였다. 망국노의 설음은 컸어도 백두산만 생각하면 어린 마음에도 힘이 솟고 희망이 부풀군 하였다.

백두산호랑이, 백두산장수를 칭송하는 화가가 되리라.

그렇게 소리없이 축적되여온 감정은 드디여 해방의 봄을 맞아 용암처럼 터져올랐다.

누가 시킨 사람은 없었지만 리률선은 영명하신 위대한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한없는 경모의 정을 담은 그림을 그려 해방을 맞이한 고향사람들의 기쁨을 더해주었다.

건국사상총동원운동에 떨쳐나선 마을어른들을 도와 벽보도 쓰고 글도 쓰면서 선동사업에 열정을 바치던 리률선은 조국땅 남반부에 둥지를 튼 야수의 무리들인 미제가 시시각각 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온다는 소식에 접하고 용약 붓을 쥐였던 손에 총을 틀어쥐고 조국보위초소에 섰다. 조국이 있어야 청춘의 희망도 재능도 꽃피울수 있다는것이 그 시절 률선의 마음속생각이였다.

그후 가렬한 전화의 나날 그는 해방직후에 그렸던 소중한 그 그림을 심장깊이 새겨안고 전선천리를 종횡무진하며 용맹을 떨치였다. 인천의 처절한 싸움판에도 용감하게 뛰여들면서 죽음도 두렴없이 조국을 지켜싸우던 그에게서 원쑤들은 한쪽다리를 앗아갔다.

이대로 주저앉느냐, 또다시 일어서 미제와의 판가리결전을 치르느냐.

운명의 갈림길에서 그를 불사신처럼 일떠세운것은 어릴적부터 마음속에 안고 산 백두산이였다.

—나의 마음속에는 백두산이 있다. 나에게서 원쑤들이 한쪽다리를 빼앗아갔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만을 굳게 믿고따르는 나의 심장의 불길, 열정의 불길만은 빼앗지 못한다.

이런 불굴의 신념을 안고 그는 전략적인 일시적후퇴의 길도 굴함없이 이어나갔고 그후 전선천리를 달리며 원쑤를 무찌르던 병사의 주소를 미술창작이라는 또 다른 좌지에 정하게 되였다.

전상자들에게 베풀어지는 어버이수령님의 은덕속에서 건강을 회복한 그는 수령이자 조국이라는 숭엄한 감정의 바다에 붓을 적셔가며 미술수업과 창작에 전념하였다.

미술, 그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매혹적인 세계였다. 어릴적에 그저 보고 느낀것을 그대로 옮기던 그런 단순한 세계가 아니였다. 혁명이라는 크나큰 세계에서 보고 대하는 미술의 세계, 수령을 알고 인민과 숨결을 함께 하며 창작하는 그림 한편한편은 황금보다 더 귀중한 재보였고 버릴수 없는 넋이였고 힘이였다. 그가 세계청년학생축전에 포화속에서 발휘되는 영웅적희생정신을 반영한 작품을 출품할수 있은것도 언제나 당과 수령, 조국과 인민에 대한 불타는 충정과 사랑의 마음을 안고 시대의 숨결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살려는 투철한 신념이 있었기때문이였다.

이렇게 시작된 그의 수령형상미술작품창작이였다.

조선화 《홍두산전투를 지휘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현실을 보고 그려야 좋은 그림을 그릴수 있소》, 《몸소 창광거리건설현장을 찾으시여》, 《봄을 맞는 청산리》, 《해방된 새 조국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시는 위대한 수령님》, 《병사들의 생활을 보살펴주시는 최고사령관 **김일성**동지》 등 그가 교단에서, 학생들을 이끌고나간 실습지에서 제자들과 함께 창작한 수령형상미술작품들은 지금도 주체미술사를 장식하는 걸작들로 빛을 뿌리고있다.

그 그림들은 그대로 백두산에 대한 사랑을 용암처럼 더욱 뜨겁게 분출시켜온 잊지 못할 성장의 자욱자욱이였다.

리률선화가는 한생 교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미술창작을 하였다. 미술창작을 전업으로 하는 전문미술가로도 될수 있었지만 그는 자기가 체득한 백두산에 대한 사랑, 수령과 조국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제자들의 심장속에 소중히 새겨주고 싶었다.

미술가가 되기 전에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는것이 교육자로서의 그의 신조였다.

리률선의 제자들가운데는 주체미술사에 혁혁한 자욱을 새긴 **김일성**상계관인, 2중로력영웅, 인민예술가, 공훈예술가, 교수, 박사 등이 수없이 많다. 제자들이 떨친 명성에 비해볼 때 리률선이라는 이름은 그리 높게 울리지는 못하였다. 그의 작품들도 제자들의 작품보다 수적으로 많지 못하다.

그러나 어머니 우리 당에서는 교육과 창조라는 헌신의 두 세계에서 보통인간의 생의 두배라고 할만큼 배가의 노력을 기울이며 피타게 헌신해온 그의 삶을 시대와 인민이 알도록 높이 내세워주었다.

여러 조선화참고서들을 집필하여 내놓을 때마다, 조선화 《간석지의 개간》, 《진펄길을 헤치고》, 《지성》, 《100만톤 증산》, 《출항》, 《항쟁의 불길》 등 품위있는 작품들을 내놓을 때마다 당에서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촬영도 하도록 하여주었고 인민예술가로도 내세워주었다. 하지만 그는 만족을 모른다.

교단을 내린지도 벌써 몇년째…

쌓은 공적만으로도 여생을 편히 보낼수 있지만 그는 《나는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늘 말하며 붓을 들고있다.

오늘은 백두산칼바람이 휘몰아치는 그림을 그렸다면 래일은 또 백두의 칼바람정신이 맥동치는 미래과학자거리건설장을 비롯한 들끓는 현실을 담은 명화들을 계속 내놓을 결심이다. 한 전쟁로병화가의 삶은 우리에게 말하고있다.

누구나 어디서나 백두산을 안고 살라. 언제나 수령의 세계, 애국의 세계를 안고 살 때 심장은 커지고 조국을 받드는 애국의 숨결도 뜨거워질것이라고.

본사기자

결혼식날에 심은 애어린 나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애국의 마음은 나무 한 그루라도 제손으로 심고 가꿀 때 움터나게 되고 그것을 지키려는 마음도 자라나게 됩니다.》

얼마전 모란봉을 찾았던 우리는 푸른 숲을 이루고 설레이는 나무들속에 갓 심은듯 한 애어린 나무가 있는것을 보게 되였다. 가까이 다가가니 나무에 매달려있는 명찰이 한눈에 안겨왔다.

결혼식기념식수

나무명:잣나무

심은 날자:2015.5.5

신랑 리경진, 신부 전철옥

오래도록 명찰에서 눈길을 떼지 못하고있는데 마침 이곳을 지나던 모란봉구역 원림사업소 공원관리원 김명선동무가 결혼식날에 신랑, 신부들이 나무를 심는것이 하나의 기풍으로 되였다고, 여기 모란봉에만도 그렇게 뿌리내린 나무들이 정말 많다고 이야기하는것이였다.

기풍, 이 말을 외우는 순간 무엇인가 가슴에 쿡 와닿는것만 같았다. 우리 시대의 청춘들이 일생을 약속하는 뜻깊은 날에 애국의 마음을 담아 제손으로 나무를 심는 기풍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것인가.

우리는 그 걸음으로 중앙기관에서 부원으로 일한다는 리경진동무와 어느 한 단위에서 로동자로 일하고있는 전철옥동무를 찾아 떠났다. 더우기 이들에게로 마음 향한것은 신랑, 신부의 민족옷차림이 매우 인상깊었다는 김명선동무의 말에 부쩍 호기심이 동했기때문이였다. 우리가 찾아온 사연을 듣고난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그때를 감회깊이 돌이켜보았다.

예로부터 결혼은 인륜대사라고 하여왔다. 그도그럴것이 결혼식날은 사람의 일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쁜 날중의 하루이다.

이날을 앞둔 리경진, 전철옥동무의 집들에서도 그 준비가 한창이였다. 뭐니뭐니 해도 우리의 조선옷이 제일이라며 치마저고리와 바지저고리의 색갈과 형태를 고르던 일들이며 영원한 추억으로 간직될 사진을 찍을 장소를 정하던 일들, 그중에서도 리경진, 전철옥동무들이 제일 중시한것이 결혼식날에 무슨 나무를 심겠는가 하는것이였다.

약속이나 한듯 생각은 한곬으로 흘렀다. 가렬한 전화의 나날 승리한 조국의 래일을 그려보시며 몸소 장자산에 두그루 잣나무를 정히 심고 가꾸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애국의 귀감을 따라배워 잣나무를 심자는것이였다. 하여 이들은 한생 변함없는 애국의 마음안고 우리 당만을 받들어갈 맹세를 담아 잣나무를 심게 되였던것이다.

《우리는 앞으로 무성한 푸른 잎을 펼칠 그 잣나무와 함께 충정의 마음, 애국의 마음을 더욱 굳게 다져가겠습니다.》

사회의 한 세포인 가정을 이루는 뜻깊은 날에 수많은 청춘남녀들이 이런 고결한 맹세를 안고 이 땅에 소중한 애국의 마음을 묻으며 첫걸음을 떼고있다. 그렇게 심어진 애어린 나무들이 자라 거목을 이루고 푸른 숲을 펼치게 되는것처럼 나날이 늘어나는 새 가정들에서 움터나고 커가는 애국의 마음들이 모여 내 나라는 더욱 부강해질것 아니랴.

모란봉의 한그루 애어린 나무를 통해 그려본 우리 조국의 래일의 모습은 더없이 아름다왔다.

조 향 미

어머니의 소원

여러해전 축하의 꽃보라속에 묻혀 김성주소학교에 들어서는 신입생들가운데는 평범한 로동자가정의 아들인 박성산학생도 있었다.

그날 학교에 정중히 모셔진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앞에서 발걸음을 떼지 못하던 성산이는 문득 웃학년 형님, 누나들처럼 자기도 래일부터 동상주변관리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여 어머니를 감동시켰다.

아들애의 가슴속에 움터나는 충정의 싹을 소중히 여기고 잘 키워주어야 하겠다고 생각한 김혜영동무는 다음날 새벽부터 성산이의 손목을 잡고 이 길에 나섰다.

직장일도 하고 가정도 돌봐야 하는 녀성의 몸으로 늘 바빴지만 몇년동안 성산이를 데리고 동상주변관리사업을 꾸준히 진행해오며 어머니가 바란 소원은 무엇이였던가.

어느날 새벽 아들과 함께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아가는 길에 김혜영동무는 속삭이듯 말하였다.

《성산아, 우리 이 길을 끝까지 가자꾸나. 자기를 안아키워준 당과 수령의 은덕에 보답할줄 아는 인간이 앞으로 커서도 훌륭한 사람이 될수 있단다.》

명절이 오면 동상주변관리사업에 필요한 수많은 물자들을 정성껏 마련하던 어머니, 아들의 충정의 마음에 티끌만한 공백이 생길가봐 불편한 몸이지만 자리에서 일어나던 어머니의 진정은 성산이의 정신적성장에 귀중한 밑거름이 되였다.

성산이는 모범소년단원이 되였다. 그후 중구역 창광고급중학교 학생이 된 성산이는 충정의 길, 보답의 한길을 곧바로 이어나갔다.

올해 1월 성산이의 일기장을 들여다보던 김혜영녀성의 눈가에는 맑은것이 고여올랐다.

《…오늘은 흰눈이 많이도 내렸다. 흰눈을 보니 대원수님들이 더욱 그리워져 만수대언덕으로 달려갔다.

만수대언덕에서 눈을 치느라니 우리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 험한 눈길을 많이도 걸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거룩한 자욱자욱이 어려와 가슴이 젖어들었다.…

앞으로 커서 인민군대에 입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결사옹위하는 육탄용사가 되겠다. 어머니의 소원대로 조국이 알고 인민이 기억하는 참된 아들로 살겠다.》

본사기자 김명훈

한없이 따사로운 사회주의조국의 품속에서 자기의 재능을 마음껏 꽃피우고있다.
—정주시 정주고급중학교에서— 본사기자 림학락 찍음

민족의 존엄을 지켜가는 사람들

투쟁으로 이룩한 승리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총련은 각급 조직과 재일동포들의 합법적지위와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옹호하고 확대해나가기 위한 대외활동을 보다 능동적으로 활발히 벌려나가야 합니다.》

지난 2009년 12월 일본의 극우보수단체로 악명높은 《재특회》(《재일조선인들의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들의 모임》)의 깡패들이 총련 교또조선제1초급학교(당시)에 무리로 몰려와 란동을 부리였었다.

전체 조선민족과 세계 진보적인류의 치솟는 격분을 불러일으킨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이 늦게나마 결말지어졌다. 《재특회》는 조선학교주변에서의 가두선전을 금지당하고 손해배상금을 물게 되였다. 이것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굴함없는 투쟁이 가져온 응당한 결실이다.

사건이 발생한 후 총련은 중앙과 지역본부에 대책위원회를 내오고 일본당국에 《재특회》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란동의 주모자처벌 및 사건의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며 여러해동안 강력한 투쟁을 벌려왔다. 유엔기구 등에도 이 엄중한 인권침해행위를 제소하였다.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투쟁은 끝내 승리로 이어졌다.

지금 재일동포들의 가슴속에는 민족적권리는 오직 굴함없는 투쟁으로써만 지켜나갈수 있다는 확신이 더욱 차넘치고있다.

용기백배해진 동포들은 총련과 민족교육에 대한 일본당국의 부당한 탄압과 차별을 분쇄하고 애국의 1세, 2세들이 피땀으로 쟁취한 권리를 지키기 위한 투쟁에 더욱 한사람같이 떨쳐나서고있다.

수난의 과거를 잊지 말자

최근 일본에서 피이한 놀음들이 벌어지고있다. 지난 세기 일본땅에 강제로 끌려온 수많은 조선사람들의 피땀을 짜내여 건설한 근대산업시설들을 버젓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만들려 하고있는것이다.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들이 일본에 끌려와 어둑컴컴한 굴속에서 중세기적인 노예로동을 강요당하였던가.

당시 어렵고 위험한 일은 전부 조선사람들 몫이였다. 수난자들은 매일, 매 시각 죽음의 위협을 받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런데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이토록 잔인무도한 행위들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파렴치한 력사외곡행위에 매여달려 동포사회의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총련 조선대학교 학생들이 일본 각지에 있는 조선인강제로동의 현장들을 찾아 력사학습을 하였다.

이르는 곳마다에서 그들은 경악을 금할수 없었다. 죄악의 력사가 비낀 곳들에서 판광의 물결만 어지럽게 흐르고있기때문이였다.

동포학생들은 생각하였다.

과거 일본의 침략과 략탈, 조선사람들에 대한 야수적만행의 흔적이 어디에나 력력하고 억울한 피해자들과 그 후손들인 우리가 력사의 증견자로 남아있는데도 저들의 극악한 범죄를 미화하며 그토록 수치스러운 장소들을 뻐젓이 판광지로까지 꾸린 일본당국이야말로 얼마나 파렴치한가.

참관에 이어 진행된 토론들에서 그들은 한결같이 자기들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겪은 피눈물나는 생활을 언제나 잊지 않고 그 쓰라린 력사가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마음의 신들메를 든든히 조여매고 애국위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자라날 불같은 결의를 다지였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재일본조선인체육련합회(체련) 도꾜도체육협회에는 자랑거리가 많다. 체련산하의 24개의 지방체육협회가운데서 오사까부체육협회와 함께 맨앞장에서 내달리는 단위가 바로 도꾜도체육협회이다.

바로 이곳에서 세계권투왕자와 세계축구선수권대회 공화국대표선수를 비롯한 우수한 선수들이 나왔고 4명의 인민체육인과 16명의 공훈체육인, 40여명의 체육명수들과 근 60명의 공화국심판원이 배출되였다. 조국과 민족의 존엄을 떨치고 동포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며 총련조직의 위력을 과시하는데서 그들이 논 역할은 자못 크다.

하기에 지난해말에 진행된 협회결성 60돐 행사장에는 한없는 긍지와 자부심의 파도가 물결쳤다. 행사에서는 광범한 동포체육인, 체육애호가들을 조직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군중체육활동을 더욱 활기있게 벌리며 지부를 거점으로 체육소조들을 더 많이 꾸리고 2020년 도꾜올림픽경기대회에 출전시킬 공화국대표선수를 육성하는것 등 높은 목표가 제시되였다.

지금 이곳 체육인들은 자기 단위의 자랑스러운 력사와 전통을 빛내이고 이역땅에 민족의 슬기와 기개를 더욱 높이 떨칠 의지로 가슴 불태우며 애국의 땀방울을 흘리고있다.

본사기자

항체약물

한 종류의 항체는 오직 그에 맞는 항원과만 결합하여 반응한다. 항체의 이 특성을 리용하여 특이적인 단백질분자들에 대한 항체를 약물로 리용하면 해당 질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할수 있다.

항체약물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에 시작되였지만 치료효과가 그리 높지 않았다. 생물공학기술의 발전으로 항체약물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과를 높일수 있는 기술들이 개발되면서 1990년대 후반기부터 항체약물에 대한 관심이 다시 높아지고 오늘날 생물의약부문에서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하게 되였으며 《항체공학》이라는 새로운 학문도 출현하게 되였다.

항체약물은 아직 생산원가가 높고 값이 비싼것으로 하여 생산성이 높은 배양세포를 개발하고 대량배양방법을 확립하는 등 해결하여야 할 문제들도 적지 않지만 사회경제적의의가 크기때문에 발전전망이 클것으로 보고있다.

본사기자

여러 나라와 지역의 특이한 손님맞이풍습

도이췰란드의 어느 한 고장에는 장기촌이 있는데 이 마을사람들은 누구나 장기두기를 즐긴다.

손님들에 대한 그들의 가장 큰 대접이 바로 장기판과 장기쪽을 내놓는것이다. 만일 손님이 장기를 두지 않으면 주인에 대한 모독으로 간주되여 환영받지 못한다.

아프리카에서 널리 쓰이는 인사방식도 특이하다. 이 지역 사람들은 먼저 오른손을 들고 손바닥을 상대방에게 보인다. 이러한 행동은 《저의 손에는 돌멩이가 없습니다.》라는 뜻으로서 손님에게 안심하라는 암시가 깔려있다. 그리고 뜨겁게 악수를 나누면 선의적인 표현으로 된다.

그런가하면 예멘사람들은 집에 찾아온 손님들에게 향수를 뿌려준다. 만마사람들은 찾아온 손님들에게 물을 뿌려주고 손님이 떠날 때에도 물을 뿌려준다. 이때 손님들도 같이 주인에게 물을 뿌려주어야 서로의 정을 두터이 할수 있다.

말레이시아에서 사는 어느 한 종족의 손님접대에서 특이한것은 삶은 닭알 두알, 소금 한접시, 찬물 한고뿌를 내놓는것이다. 이때 닭알은 재부를 의미하고 소금은 하늘이 주는 은혜라는 뜻을 담고있다고 한다.

영국 서해안에 있는 어느 한 섬주민들의 손님맞이방식은 매우 놀랍다. 이곳 사람들은 손님들이 오면 울면서 맞이한다. 하여 이 섬의 주민들은 웃음과 울음이 뒤바뀐 사람들로 알려져있다.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기쁜 일이 있으면 울음으로 자기 심정을 표시한다.

본사기자

축구반운영의 생활력을 힘있게 과시

제5차 전국중학교축구반 축구경기대회 고급중학교부류 남자경기를 보고

지난 13일부터 22일까지 평양에서는 제5차 전국중학교축구반 축구경기대회가 성황리에 진행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체육을 발전시키자면 체육선수후비양성사업에 품을 들여야 합니다.》

대회에는 각 도(시)들에서 선발된 초급 및 고급중학교축구반 남, 녀선수들이 참가하여 관중들의 감탄을 자아내고 예상을 뒤집어엎는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수많이 펼치였다.

고급중학교부류 남자경기만 놓고보아도 그러했다.

조별련맹전 첫 경기에서 남포시팀은 전반전이 시작되여 15분동안에 석점이나 잃었다. 하지만 와우도구역 서흥고급중학교 선수들을 기본으로 하는 남포시팀에서는 전술적의도를 잘 살리면서 련속 꼴을 성공시켜 4:3으로 함경북도팀을 이기였다.

이 놀라운 경기성과는 우연한것이 아니다. 지난 시기 시선발경기 등 여러 계기들을 통하여 축구반학생들에 대한 훈련지도의 부족점들을 정확히 찾아쥐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데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온 서흥고급중학교의 리철동무를 비롯한 지도교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의 결과이다.

3, 4위를 결정하는 경기에서 황해북도팀을 2:0으로 누르고 순위권에 입선한 성과 역시 지도교원들의 진취적인 지도밑에 남포시팀 선수들이 더욱 튼튼히 다진 기술전술적잠재력을 떠나 생각할수 없는것이다.

수많은 관중들의 이목을 최대로 집중시킨것은 평양시팀이였다. 한것은 전국적인 경기에 처음으로 참가한 락랑구역 3중영예의 붉은기 승리고급중학교 축구반학생들을 기본으로 구성된 이 팀이 결승경기에서 평안북도팀을 5:1이라는 압도적인 점수차이로 이기고 우승의 영예를 떨쳤기때문이였다.

이것을 통해서도 당의 령도아래 온 나라에 체육열풍이 차넘치는 속에 축구반운영에서도 경쟁열풍이 세차게 일고있음을 잘 알수 있다.

관중들은 시대의 요구에 맞게 교육사업을 부단히 개선하는데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있는 승리고급중학교가 체육에서도 통장훈을 불렀다고 찬탄을 아끼지 않았다. 리광진, 김억식동무를 비롯한 지도교원들의 축구반운영사업을 힘있게 떠밀어준 교장 로력영웅 인민교원 김석렬동무의 불같은 열정도 감동적이다. 더욱 주목을 끈것은 이 결승경기의 관람자들속에 락랑구역의 책임일군들도 있은것이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평양시팀 선수들의 기세는 더욱 충천해졌으며 전반전에 두꼴을 성공시킨데 이어 후반전에 세꼴이나 더 넣었다.

사업이 바쁜 속에서도 축구반학생들의 경기를 관람하면서 선수들에게 신심을 북돋아줄뿐아니라 앞으로 더 힘을 넣어야 할 문제점까지 탐구하는 책임일군들의 적극적인 사업기풍은 본받을만 한것이다.

지난 시기와 마찬가지로 이번 대회 고급중학교부류 남자경기에서도 각지의 여러 학교 축구반학생들이 두각을 나타내여 소백수, 리명수, 룡남산체육단, 선봉축구단 등 전문단체의 감독들의 관심을 모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회가 기초기술교육이 기본인 축구반운영을 통한 선수후비양성체계가 보다 높은 수준으로 발전하였음을 보여주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이러한 현실에 맞게 대회의 진행방식도 새로와졌다.

실례로 이번 대회에서는 육체기술지표측검을 먼저 진행하고 그 결과를 선차적으로 중시하여 조별련맹전 최종순위를 결정하는 방식을 새롭게 적용하였다. 육체기술지표측검에서는 물론 조별련맹전경기성적에서도 제일 앞자리를 차지한 평양시팀과 함께 평안북도팀, 황해북도팀 그리고 남포시팀이 고급중학교부류 남자축구 결승단계에 진출하게 된것도 이러한 방식에 따른것이다.

위대한 장군님의 손길아래 중, 소학교들에 축구반이 나오고 지난 여러해동안 활발히 운영되는 과정에 수많은 축구선수후비들이 자라 전도유망한 선수로 맹활약하고있는 자랑찬 현실을 통하여, 또 올해에 다섯번째의 년륜을 새기며 훌륭한 경기장면들을 펼친 이번 대회를 통하여 각지 일군들과 교육자들, 관람자들은 절세위인의 령도의 현명성에 대하여 다시금 절감하였으며 나라의 축구발전의 밝은 미래를 더욱 확신하였다.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빛나는 현실로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받들어 어디서나 축구반운영에 힘을 넣고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 대한 기초기술교육에 품을 들일 때 앞날의 축구명수들을 더 많이 키워낼수 있으며 그와 더불어 체육강국건설의 결승선을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조국의 발구름소리는 더욱 높이 울려퍼질것이다.

본사기자 오철룡

천연보습물질 알긴을 리용한 화장품

사회의 발전과 더불어 화장품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수준이 날로 높아가고있는 속에 최근에는 누구나 록색화장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나라의 모든 자연부원을 전면적으로 조사장악하고 적극적으로 개발리용하여 자체의 원료, 연료, 동력기지를 확대강화하며 산이 많고 세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자연지리적조건에 맞게 산림자원과 해양자원을 효과적으로 개발리용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록색화장품은 천연원료를 많이 리용하고 될수록 피부를 자극하는 색소, 향료, 방부제를 적게 써서 만든 화장품이다.

록색화장품은 사람들의 미를 돋구어주는 효과가 좋으면서도 부작용이 전혀 없기때문에 그에 대한 사람들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있다.

마름류에 들어있는 기능성물질들이 피부보호 및 영양작용을 한다는것이 밝혀지면서 마름류를 리용한 록색화장품개발이 지금 세계적인 추세로 되고있다.

마름조직과 인체피부조직은 주위환경으로부터 영양성분을 섭취하고 생명활동에 필요한 생화학적활성조절과 협동작용이 거의 같다.

다시마, 미역을 비롯한 밤색바다나물속에는 점액다당이 들어있는데 이것은 마름체의 건조를 막고 병균의 침입을 방지하는 등 외적환경으로부터 마름체를 보호한다. 다시마나 미역이 다른 식물들에 비해 잘 마르지 않는것은 바로 그속에 점액다당이 많이 포함되여있기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다당은 중요한 생물활성고분자이며 인체피부진피층의 중요구성성분이다.

많은 다당류들은 피부신진대사과정을 크게 조절하는 작용을 한다. 이런 생물활성다당을 기능성화장품첨가제로 리용하는것은 그것이 주로 보습작용을 하며 로화지연작용, 여드름방지작용, 피부조직수복작용, 미백작용도 나타내기때문이다.

김일성종합대학 생명과학부의 연구집단에서는 우리 나라에 흔한 다시마로부터 얻어낸 천연보습물질인 알긴을 주성분으로 하는 살결물, 물크림을 만들어 내놓았다.

연구집단에서는 세계적추세에 맞게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다시마에서 분리한 생물활성다당을 화장품에 적용하여 제품화함으로써 바다나물의 유용성분들을 리용하여 화장품의 가지수와 질을 높일수 있는 과학기술적토대를 마련하였다.

천연보습물질인 알긴을 주성분으로 하고 약초추출물 등 피부에 좋은 여러가지 유용물질들을 포함하고있는 기능성화장품인 알긴살결물과 알긴물크림은 사용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있다.

본사기자 백성근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0돐에 즈음하여

사진전람회 개막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0돐기념 사진전람회 《주체의 기치, 애국애족의 기치따라》가 개막되였다.

전람회장에는 총련의 결성과 강화발전에 거대한 공헌을 하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재일조선인운동을 현명하게 령도하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혁명업적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있다.

《내각전원회의에서 공화국정부의 뜨거운 동포애적립장에 대하여 천명하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총련결성 10돐 기념행사에 참석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재일동포상공인 조국방문단을 만나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주체적인 로선전환방침을 제시하시여 총련을 무어주시고 재일동포들을 한품에 안아 공화국의 당당한 해외공민으로 내세워주신 어버이수령님의 혁명력사를 가슴뜨겁게 되새겨주고있다.

혁명령도의 첫 시기부터 비범한 사상리론적예지로 재일조선인운동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며 재일동포들이 애국애족의 한길에서 값높은 삶을 빛내이도록 온갖 사랑과 은정을 다 베풀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숭고한 위인적풍모가 《총련의 강화발전을 위한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총련의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들에게 강령적가르치심을 주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총련의 책임일군들과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등의 사진문헌들에 어리여있다.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한 재일본조선민주녀성동맹대표단 단장을 만나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65돐경축 재일본조선인축하단 단장을 만나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비롯한 사진문헌들은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공화국의 한 부분으로, 한 식솔로 여기시며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대한 사랑의 세계를 감명깊게 펼쳐보이고있다.

또한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가 걸어온 자랑찬 60년의 력사와 위대한 수령님들의 애국유산인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기 위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투쟁모습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여있다.

전람회개막식이 23일 인민문화궁전에서 있었다.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 양형섭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진국 해외동포사업국 국장, 성, 중앙기관 일군들, 평양시내 근로자들이 개막식에 참가하였다.

배익주 총련중앙상임위원회 부의장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결성 60돐 재일본조선인감사단, 박종상 재일본조선문학예술가동맹 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총련로간부대표단, 사회주의조국에 체류하고있는 재일동포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김용진내각부총리가 개막사를 하였다.

그는 총련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무어주시고 이끌어오신 주체형의 첫 해외교포조직이며 우리 공화국의 존엄높은 해외공민단체이라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는 사진전람회를 통하여 총련을 강위력한 해외교포조직으로 강화발전시키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숭고한 민족애, 동포애의 력사를 되새겨보며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에게 각별한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천출위인상을 심장깊이 간직하게 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우리 조국과 인민은 사회주의조국과 생사운명을 함께 하며 나라의 통일과 강성국가건설위업수행에 뚜렷한 자욱을 새긴 총련과 재일동포들의 애국충정을 영원히 잊지 않을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주체적해외교포운동의 진두에 높이 모시고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힘차게 열어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들의 손길아래 자라나 승리와 영광을 떨쳐온 총련조직을 세계해외교포운동의 본보기로 영원히 빛내여나가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 참가자들은 전람회장을 돌아보았다.

경축연회 진행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결성 60돐 경축연회가 21일 도꾜에 있는 조선회관에서 진행되였다.

연회에는 허종만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의장과 부의장들, 총련중앙감사위원회 위원장, 국장들, 간또지방 총련본부 위원장들, 중앙단체, 사업체 책임일군들, 동포들이 참가하였다.

일본의 정계, 경제계, 언론계, 사회계, 문화계 등 각계 인사들, 일본주재 여러 나라 대사들과 대사관성원들, 국제기구대표들, 특파기자들이 여기에 초대되였다.

연회에서는 허종만의장이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께서 주체44(1955)년 5월 25일 총련을 무어주심으로써 재일조선인들은 일본땅에서도 주체성과 민족성을 견지하면서 사업하고 생활할수 있게 되였다고 말하였다.

총련이 결성된 후 60년동안 위대한 김일성대원수님과 김정일대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따뜻한 배려속에서 재일동포들의 의사와 리익을 대표하며 동포사회와 일본의 지역사회발전에 이바지하여온데 대해 언급하였다.

특히 일본에서 유치원으로부터 대학에 이르는 민주주의적 민족교육체계를 세우고 발전시켜왔다고 하면서 우리 학교에서 배운 졸업생들은 동포사회와 민족성을 지키고 이어나가는데서 귀중한 존재로 되고있다고 밝혔다.

총련은 또한 조선과 일본의 선린우호와 관계정상화,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왔으며 조국의 해외대표부적역할을 수행하여왔다고 언명하였다.

총련이 이룩한 모든 성과들은 60년 오랜 세월 조국과 수령에 대한 굳은 신념을 간직하고 재일동포들의 일심단결을 강화해온 결과라고 강조하였다.

올해는 일본제국주의식민지통치로부터 조국이 해방된지 70돐이 되는 해라고 피력하였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70년을 헤아리는 오늘에 와서도 과거의 잘못을 진지하게 사죄하고 배상하기는커녕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면서 비우호적인 정책을 실시하고있다고 규탄하였다.

특히 현 정권은 공화국에 대한 압력강화의 일환으로 총련과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적탄압과 인권침해행위를 감행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탁월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는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의 길을 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 문명국가를 건설해나가고있으며 모든 분야에서 날마다 비약적발전을 이룩하고있다고 격찬하였다.

총련은 애족애국의 신념과 일심단결의 힘으로 부닥치는 애로와 난관을 헤치고 이겨낸 60년의 귀중한 전통을 계승하면서 영광스러운 김정은시대의 새로운 숨결로 약동하는 조국과 발걸음을 맞추어 재일조선인운동의 새 전성기를 열기 위하여 계속 전진해나갈것이라고 언명하였다.

그는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과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조일선린우호관계촉진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해나갈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건강을 축원하여 잔을 들었다.

【조선중앙통신】

겨레를 등진 반역의 무리, 극악한 파쑈광들을 단호히 심판하자

《유신》독재를 되살리는 야만적인 파쑈통치

불순하기 그지없는 《인권》모략으로 우리를 해치려는 괴뢰집권자의 망동이 극도에 달하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외세와 공모결탁하여 《북핵위협》이니, 《도발》이니 하고 떠드는 한편 우리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터무니없이 헐뜯는 《인권》모략설을 내돌리며 대결소동에 광분하고있다. 하지만 박근혜가 제아무리 《북인권》이 어쩌니저쩌니 하며 악담질하여도 그에 귀기울일 사람은 없다.

인민대중을 제일 귀중한 존재로 내세우고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에서는 인간의 자주적권리와 존엄이 가장 높은 경지에서 보장되고있다. 우리 공화국에는 애초에 인권문제라는것이 존재할수 없다. 하기에 세상사람들은 괴뢰들의 주제넘은 반공화국《인권》모략소동에 대해 제 바지가 줄줄 내려오는것도 모르고 남을 시비질하는 분수없는 망동으로 조소하고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 가장 처참하게 유린되고있는 세계최악의 인권말살지대는 다름아닌 남조선이다. 국제인권단체들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남조선은 인권문제가 가장 심각한 지역으로 손꼽히고있다. 괴뢰집권자가 제 처지도 모르고 《북인권》이니 뭐니 하며 피대를 돋굴수록 그것은 남조선을 인권의 불모지로 전락시킨 특등인권범죄자, 파쑈폭군으로서의 저들의 추악한 정체만을 적라라하게 드러내보여주고있다.

괴뢰집권자는 악명높은 《유신》독재통치를 되살리며 남조선을 민주와 정의가 깡그리 말살되고 파쑈와 폭압이 란무하는 암흑사회로 전락시킨 희세의 깡패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지금도 정보통치, 공포통치로 악명높았던 《유신》독재시대에 대해 생각하면 소스라쳐 놀라군한다. 통일혁명당재건사건, 민청학련사건, 울릉도간첩단사건, 남민전사건 등 각종 반공화국모략사건들이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속에 합법적인 정당, 단체들이 강제해산당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백주에 《간첩》으로, 《죄인》으로 몰려 감옥귀신이 되고 변사체로 되여 피에 주린 야수들을 말없이 절규하던 불법, 무법천지가 바로 《유신》독재하의 남조선현실이였다. 그때로부터 세월은 멀리도 흘러왔건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식의 《유신》통치가 남긴 피멍은 아직도 남조선인민들의 가슴속에 응어리져있다.

그런데 그 몸서리치는 과거의 《유신》독재통치가 오늘 남조선에서 고스란히 되살아나고있다.

《유신》의 바통을 넘겨받은 박근혜는 《유신》독재시기와 다를바 없는 강권통치, 폭압통치를 일삼으면서 저들의 정책에 조금이라도 항거하는 단체, 인사들을 가림없이 닥치는대로 탄압말살하고있다. 아무리 합법적인 정당이나 단체, 언론기관이라고 해도 반역정책실현에 장애로 된다면 파쑈악법을 휘두르며 무차별적으로 해체해버리는것이 바로 괴뢰패당이다. 남조선의 통합진보당이 민주주의와 정의를 주장하고 보수《정권》의 파쑈폭압에 반기를 들었다는 리유로 강제해산되고 이 당소속 《국회》의원이 터무니없는 죄명을 쓰고 철창속에 갇힌것은 그 하나의 실례에 불과할뿐이다.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당국자를 비난하는 노래를 불렀다고 하여 감옥에 끌려가야 하고 우리 공화국의 현실을 있는 그대로 말해도 《보안법》위반으로 형벌을 받아야 하는것이 남조선의 험악한 현실이다. 현 괴뢰통치배들은 집권후 불과 1년도 못되는 사이에 《친북성향》이니 뭐니 하는 나발을 불어대며 수백개의 인터네트싸이트들을 강제폐쇄하였다. 그로 하여 남조선에서는 정치활동의 자유, 언론의 자유 등 민주주의적자유와 권리가 완전히 말살되였으며 괴뢰정보원과 경찰의 삼엄한 눈초리속에서 사람들은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는 형편이다. 이것이 통일이라는 말만 하여도 감옥에 끌려가야 했던 과거 《유신》독재시기와 무엇이 다른가. 괴뢰보수패당의 파쑈통치야말로 21세기 세계정치무대에서 그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깡패정치, 독단과 전횡의 극치이다.

괴뢰집권자는 반인민적악정으로 남조선인민들의 생존권과 존엄을 무참히 유린하고 온 남조선사회를 인권의 무덤으로 만든 범죄자이다.

현 괴뢰집권자는 그 무슨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는 기만적인 나발을 요란하게 불어댔다. 하지만 오늘 남조선의 인권실태는 매우 험악하다.

실업사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있는 속에 수백만세대가 집이 없어 뜨내기생활을 하고있으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은 청년들은 삶을 포기한 《삶포세대》로 전락되고있다. 수많은 사람들이 생존권을 빼앗기고 삶의 막바지에서 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던 끝에 눈물겨운 자살의 길을 택하고있다. 일자리를 잃고 절망에 빠진 로동자가 죄많은 아버지를 용서해달라며 탄불을 피워놓고 목숨을 끊을 때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빚을 도저히 감당할수 없었던 한 가정주부는 15층아빠트에서 4살짜리 자식을 품에 안고 뛰여내려 자살하였다. 오늘 남조선에서 자살자수는 하루평균 40여명에 이른다. 이 얼마나 사람 못살 인간생지옥인가.

가장 초보적인 생존권마저 무참히 짓밟히는 암흑의 세상에서 더는 그대로 살수 없기에 남조선인민들은 결연히 투쟁의 마당에 떨쳐나서고있다.

얼마전 남조선에서 있은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을 비롯한 각계층 시민, 사회단체들의 항의시위투쟁은 반역패당의 악정에 대한 남조선인민들의 분노와 증오의 폭발이였다.

《세월》호참사의 주범인 괴뢰당국으로서는 마땅히 유가족들에게 무릎꿇고 사죄하며 그들의 요구대로 대참사의 진상규명에 발벗고나서야 할것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뢰집권자는 돌아오지 못한 자식들을 애타게 부르며 사건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들에게 무차별적인 탄압으로 대답해나섰다. 경찰깡패들을 내몰아 시위자들에게 물대포와 최루액을 마구 들씌우는것으로도 부족하여 그들을 방패로 내리찍고 머리를 짓쪼아 수십명에게 부상을 입히는 등 짐승도 낯을 붉힐 야수적만행을 거리낌없이 감행하였다. 지어 《세월》호유가족들과 각계층 시민들의 투쟁을 《불법》으로 매도하면서 오히려 집회를 조직한 단체에 책임을 묻겠다고 제편에서 날뛰고있다. 이런 파쑈의 란무장에서 어떻게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해 생각할수 있겠는가. 오죽했으면 유엔인권단체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괴뢰패당의 야만적인 파쑈폭거에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였겠는가.

남조선이야말로 지구상에서 가장 포악한 독재통치가 살판치는 세계최악의 인권불모지, 파쑈암흑사회이다.

극악한 인간백정의 무리, 인권교살자들이 감히 그 누구의 《인권》에 대해 시비질하는것이야말로 인권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 아닐수 없다.

반인민적악정과 파쑈폭압을 일삼으며 남조선을 민주주의와 인권의 불모지로 전락시킨 박근혜와 괴뢰역적패당에 대한 남녘민심의 분노는 지금 분화구를 찾는 용암마냥 끓어번지고있다. 그 어떤 횡포한 독재통치도 인민을 이길수 없다. 남조선인민들은 동족대결의 무리, 파쑈독재집단, 인권범죄자들에게 준엄한 심판을 안기고 자주, 민주, 통일의 꿈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은 정 철

인도주의를 모독하는 뻔뻔스러운 말장난

갈라진 혈육의 아픔을 교묘하게 악용하여 동족을 마구 헐뜯는것은 남조선괴뢰들의 고질적인 악습이다.

며칠전 박근혜는 그 무슨 《축사》라는데서 《고령의 리산가족고통》이니 뭐니 하며 저들이 무엇인가 하고있는듯이 노죽을 부렸다. 그에 앞서 《이북도민》대표들이라고 하는 어중이떠중이들을 청와대에 끌어들인 자리에서는 《리산가족》문제와 관련한 대화를 《북이 거부》하고있다고 하면서 마치 우리때문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이루어지지 못하는듯이 현실을 파렴치하게 외곡하였다.

그야말로 아연함을 금할수 없다. 도대체 괴뢰당국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입에 올릴 체면이 있는가.

나라의 분렬로 우리 민족이 겪는 가장 큰 불행의 하나는 생리별을 당한 혈육들이 서로 만나지 못하고 생사조차 모르고있는 비극이다. 그런데 이 문제가 왜 해결되지 못하는가. 그것은 북남관계문제를 저들의 불순한 정치적목적에 악용하면서 동족대결에 피눈이 되여 날뛴 괴뢰패당의 반민족적망동때문이다.

올해초만 놓고보아도 우리는 북남관계에서의 대전환, 대변혁을 이룩하고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기 위한 중대한 제안을 내놓고 남조선당국이 그에 적극 호응해나설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괴뢰패당은 우리의 성의있는 제안에 도전하여 외세와 함께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과 반공화국《인권》모략, 체제대결소동에 광분하였다. 동족을 한사코 해치려고 칼을 물고 헤덤비면서 인도주의문제를 해결하자는것이 말이나 되는가.

전시에도 인도주의문제가 제기되면 쌍방이 교전을 중지하는것이 관례일진대 굳이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가 절실하게 제기되고있는 때에 외세와 작당하여 북침핵전쟁소동에 미쳐돌아간 괴뢰들의 처사를 과연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외세와 야합하여 북침핵전쟁연습을 매일같이 벌리고 터무니없는 악담으로 동족을 미친듯이 헐뜯으면서 그 무슨 《리산가족의 고통》을 운운하는것이야말로 갈라진 혈육들의 아픈 상처에 칼질을 하고 인륜을 모독하는 천하의 악행이 아닐수 없다.

지난해만 놓고보아도 괴뢰들은 북남사이에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과 관련한 협의가 한창 진행되고있는 때에 조선서해 직도상공에 미국의 핵전략폭격기를 끌어들여 도발적인 북침훈련을 벌려놓음으로써 인도주의협력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당시 실현되지 못할번 하였던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이루어진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의와 동포애, 인도주의립장에 의한것이였다.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사사건건 방해하며 우리의 성의와 노력에 반통일대결망동으로 대답해나선 괴뢰역적패당이 감히 무슨 낯짝에 《고통》이니, 《거부》니 하며 악담질인가.

괴뢰패당이 《5.24조치》같은 대결골동품을 그 무슨 《원칙》이니 뭐니 하며 계속 붙안고있는것도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의 근원적해결을 바라지 않는자들의 망동이다. 남조선에서 한명의 인원, 한푼의 자금도 북에 흘러들어가게 해서는 안된다는 《5.24조치》가 시퍼렇게 독을 쓰는데 어떻게 수백명의 인원이 오가는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이 북남사이에 진행될수 있겠는가. 남조선 각계가 《5.24조치》에 대해 《리산가족들의 상봉을 가로막는 리별조치》라고 한결같이 락인규탄하고있는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북남사이의 그 어떤 대화와 협력도 진행될수 없게 정세를 최악의 파국상태에 몰아넣은 장본인들이 이제 와서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문제를 들고나온 목적은 뻔하다. 저들이 인도주의문제에 관심이 있는듯이 냄새를 피워 북남관계파국의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고 등돌린 민심을 회유하여 날로 심화되는 《정권》위기를 수습해보려는것이다. 괴뢰들이 시커먼 속이 들여다보이는 그따위 가소로운 나발질로 세상사람들을 속이려 하는것은 실로 어리석기 그지없다.

박근혜패당이 숭고한 인도적문제를 들고나와 우리를 모해하고 극도의 통치위기를 모면하기에는 나라와 민족앞에 지은 죄가 너무도 크다. 남조선괴뢰들은 흩어진 가족, 친척상봉을 근원적으로 가로막은 용납 못할 죄악의 대가를 반드시 치르어야 한다.

리 효 진

단평 봉변당한 불청객

얼마전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이 광주에서 진행된 광주인민봉기 35주년 기념행사에 코를 들이밀었다가 격분한 참가자들로부터 욕설과 물병세례를 당하였다.

그야말로 민주와 담을 쌓은자에게 차례진 응당한 봉변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도대체 김무성이 무슨 체면에 광주인민봉기기념행사장에 끼여든단 말인가.

《군부독재타도》, 《미제축출》을 웨치며 항쟁의 거리에 떨쳐나선 의로운 청년학생들과 시민들을 《공수특전대》야수들을 내몰아 무참히 학살하고 온 광주시를 피의 목욕탕으로 만든자들이 과연 누구인가.

《유신》독재부활로 인민들이 피흘려 쟁취한 민주화투쟁의 전취물을 깡그리 짓밟으며 광주항쟁용사들의 넋마저 말살하려고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하게 하는자들은 또 누구인가.

그런데도 김무성이 여당대표랍시고 거들먹거리며 행사장에 뻐젓이 나타났으니 광주시민들이 어찌 격분하지 않을수 있겠는가.

이미 행사주최측에서는 그가 참가하는 경우 불청객으로서 반갑지 않은 일이 생길수 있다는데 대해 경고하였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가죽이 두텁기란 이를데 없는 이자는 마치 저들이 민주화를 위해 목숨도 서슴없이 바친 광주의 희생자들을 존중하는듯이 냄새를 피우려고 행사장에 자기 몰골을 드러냈다. 그것은 《세월》호참사유가족들의 환심을 사려고 나오지도 않는 《악어의 눈물》을 줴짜며 노죽을 부린 괴뢰집권자의 광대극과 조금도 다를바 없다. 그러니 광주의 시민들이 그의 역스러운 망동에 분노를 터치지 않을수 있는가. 김무성으로서는 이번에 격노한 광주시민들로부터 몽둥이찜질을 당하지 않은것이 천만다행일것이다.

괴뢰보수패당이 인민의 지향과 의사에 한사코 역행하며 《유신》독재부활책동에 계속 미쳐날뛴다면 종당에는 징벌의 무서운 날벼락을 들쓰게 된다는것을 명심해야 한다.

라 영 국

5.18정신을 계승하여 6월항쟁을 벌려나갈것을 선언

남조선인터네트신문 《통일뉴스》에 의하면 남조선의 5.18민중항쟁서울기념사업회가 18일 서울광장에서 5.18광주인민봉기 35돐 기념집회를 가지였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은 사회의 민주화를 지향하여 폭력과 독재, 억압을 반대하고 자유와 민주주의, 정의와 인권을 위해 싸운 정의로운 항쟁이였다고 언명하고 그날의 항쟁정신을 계승하여 진보세력이 함께 모여 사회의 민주화를 위한 6월항쟁을 벌려나가자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주화투쟁전통의 말살을 노리고

지난 5월 18일 남조선에서는 광주인민봉기 35돐을 맞으며 민주화운동기념식이 진행되였다. 그런데 이 기념식은 또다시 반쪽짜리 행사로 막을 내리고 말았다. 괴뢰당국이 행사의 주제가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지 못하게 하였기때문이다.

보수패당의 망동에 분노한 시민사회단체들과 유가족들은 당국이 주관하는 행사놀음을 거부하고 광주시 금남로의 전 전라남도청앞에서 따로 기념식을 열었다. 각계층 인민들속에서는 괴뢰당국의 처사가 광주인민봉기의 《정신과 가치를 부정하는 폭력행위》라는 비난의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1997년부터 남조선에서는 당국관계자들과 민간단체들이 행사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다같이 부르는것이 관례로 되여왔다. 그러나 광주인민봉기를 야수적으로 탄압한 군부파쑈독재《정권》에 뿌리를 둔 극악한 깡패인 리명박역도의 집권후 사정이 달라졌다.

역적패당은 집권하자마자 《5.18기념곡을 새로 제정》하겠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 노래를 없애버릴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냈다.

그리고 행사장에서 참가자들이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수 없다는 규정을 내놓았다.

현 괴뢰집권자가 청와대에 들어앉은 후 사태는 더욱 험악해졌다.

괴뢰패당은 말로는 《5.18민주정신을 존중》한다느니 뭐니 하면서도 실제에 있어서는 광주인민봉기의 력사적의의를 외곡하고 항쟁렬사들의 투쟁정신을 말살하기 위해 공공연히 책동하였다. 지난 2013년 괴뢰들이 보수언론들과 인간쓰레기를 내세워 광주인민봉기를 《북의 배후조종과 특수부대의 개입으로 일어난 폭도들의 란동》으로 날조하는 모략선전을 벌렸다가 개코망신을 당한것은 그 대표적실례이다.

지금 남조선에서 《님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지 못하도록 한사코 가로막고있는 장본인은 다름아닌 괴뢰집권자이다.

대끝에서 대가 나고 싸리끝에서 싸리 난다는 말이 있다. 《유신》독재자의 피줄을 이어받은 그가 민주화투쟁의 상징인 《님을 위한 행진곡》을 아니꼽게 여길수밖에 없다는것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이다.

지난 3월 괴뢰집권자는 이 노래를 기념곡으로 지정하고 행사장에서 제창하게 하라는 야당대표의 요구에 《기념곡지정제도가 없다.》느니, 《보훈처에서 론의》하도록 하겠다느니 하며 아예 등을 돌려댔다. 더우기 그는 올해에도 광주인민봉기관련 행사에 참가하지 않았다.

바로 여기에서 남조선인민들의 피어린 민주화투쟁의 전통과 그 고귀한 전취물을 짓밟아버리려고 발광하는 역도의 흉계가 낱낱이 드러나고있다.

집권자의 처사가 이러할진대 그아래 졸개들이 어떻게 놀아대겠는가 하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얼마전 괴뢰보훈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터무니없이 우리와 련관시키며 올해의 광주인민봉기관련 행사에서도 이 노래를 제창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노래가 《북영화에 배경음악》으로 쓰이였기때문에 《종북》이라는것이다. 그야말로 《님을 위한 행진곡》을 기어코 말살할 구실만 찾고있는자들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할수 없는짓이다. 결국 현 괴뢰당국의 출현이후 5.18민주화운동기념식은 3년째나 반쪽짜리 행사로 치르어지고있다.

민주주의를 위해 목숨까지 바친 광주항쟁용사들을 찬양하는 《님을 위한 행진곡》을 못 부르게 하는것은 곧 민주와 인권에 대한 악랄한 유린으로서 현 괴뢰정권의 파쑈적본색의 뚜렷한 발로이다.

현실은 남조선사회가 인민들의 자유와 민주주의가 깡그리 유린말살되던 《유신》독재시기에로 완전히 되돌아가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남조선인민들에게 있어서 《님을 위한 행진곡》과 관련한 문제는 단지 한편의 노래를 부르는가 못 부르는가 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화의 전취물을 지켜내는가 아니면 영영 말살당하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사회정치적문제이다. 하기에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이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하고있는 괴뢰패당을 한목소리로 준렬히 단죄규탄하면서 독재타도투쟁에 과감히 떨쳐나서고있는것이다. 며칠전 《새누리당》대표 김무성이 광주인민봉기기념행사에 감히 끼여들려 하다가 물벼락을 맞고 후줄근해서 쫓겨간것은 분노한 민심의 표시이다.

현 괴뢰집권세력이 민주주의와 인권을 말살하며 《유신》독재부활에 미쳐날뛰고있지만 그것은 부질없는짓이다. 지난 1월 전 전라남도청앞 광장에는 광주시민들의 한결같은 념원에 따라 과거 군부파쑈독재《정권》에 의하여 철거되였던 시계탑이 30여년만에 다시 설치되였다. 매일 오후 5시 18분이 되면 광주인민봉기를 상징하는 노래인 《님을 위한 행진곡》이 울려나오고있다.

노래를 들으며 남조선인민들은 파쑈독재에 항거하여 목숨도 아낌없이 바친 렬사들의 고귀한 넋과 투쟁전통을 이어 사회의 자주화와 민주화, 조국통일을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떨쳐나설 결의를 더욱 굳게 가다듬고있다.

본사기자 심 철 영

ㄱ-510811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 집 위 원 회